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7일) 2022년 3월 9일 수요일

포교 · 복지 등 '일상으로' 불교, '리오프닝' 잰걸음

〈Re-opening〉

코로나 딛고 산문 여는 불교계 눈길

신성민 · 노덕현 · 임은호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리오프닝(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에 따라 불교계도 이른바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다. 햇수로 3년째 문을 걸어잠그고 비대면 방식에 의존했던 불교계가 조심스럽게 산문을 열고 있다.

'대면' 포교로 대전환 시도

불교계 변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전법과 포교 분야에서의 대면 전환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미타사까지 '전법ON 포교원력 결집 걷기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순례에는 300여 포교사들이 함께해 도심 거리를 걸으며 근래 보기 힘든 불자들의 모습을 연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엔데믹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7월 포교신행단체들이 한데 모이는 결집대회에 이어 연말경 대규모 불자들이 모이는 포교결집대회도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3월 중순 불자네트워크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교구본사를 순회, 교구신도회 대면활동을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포교사단도 3월 6일 제22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4월 포교사 재교육 강좌 등 코로나 기간 중단되거나 연기했던 활동을 재개할 것을 알렸다.

불자들이 사찰에서 교육을 받거나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사찰 불교대학도 3월부터 각종 강좌를 개설해 다시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신행활동을 불교대학 신설로 돌파하려는 사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선운사 불교대학, 불국사 연화사불교대학, 수원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마곡사 불교대학, 제주 법화사 불교상담대학이 최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신규인가를 받았다.

연등회 · 템플 테마 '일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표어로 내세우고, 대면 행사를 계획 중이다.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4월 30일 오후 4시30분 동국대 운동자에서 진행되는 어울림마당이 진행되며,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도 흥인지문부터 종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행렬이 재현된다. 이에 따라 연희단의 흥겨운 율동과 장엄한 행렬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등행렬 관람석과 회향한마당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도 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익 템플스테이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 홍보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발열 체크와 개인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수칙만을 지키며 템플스테이는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관련 기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 복지서비스도 확대

복지관들도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전개를 시작하고 있다. 중단됐던 각종 대면 교육프로그램과 봉사단,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들의 재가동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다는 계획이다. 카페와 베이커리 등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사업들이 정상화되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사회활동 기회 제공은 물론 일자리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결집대회 연내 예정
불교대학 대면강좌 봇물

연등회, 코로나 이전 복귀
대면 복지서비스도 강화

대면 · 비대면 복합적 활용
기본방역 준수 등 목소리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2022년은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복합활용, 추가 변이 민첩대응 필요

이 같은 불교계의 대면 전환은 일상회복 기대감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과 함께 3년간 진행해 온 비대면 방식의 종교활동이 조직운영 등에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찬영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신도조직 네트워크 등에서는 비대면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면활동 진작과 함께 뉴미디어 활용 등 시대흐름에 맞게 불교계가 3년간 개발해온 비대면 방식도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전환 후 갑작스런 변이 창궐에 대비한 불교계 대응태세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재환 병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대면 활동 증대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기본 방역을 현장에서 면밀히 챙기고, 추가 변이 발생시 종단의 신속한 지시 하달로 일사분란한 방역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o War! Please!"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3월 3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홍법사 사부대중은 'No War Please'의 메시지를 담은 촛불을 점등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했다.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불교계 한목소리 '호소'

조계종 등 각 종단 성명 발표해
자승 스님, 평화법회 제언 '눈길'
"명분 없는 전쟁…총 · 칼 거둬야"

"우크라이나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함께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종단들은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초하루를 맞아 평화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일 입장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상대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는 결국 자신을 향하는 총칼이 될 것으로 잔혹한 총칼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조계종은 이날 전국 사찰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발원문'을 시달하고 "중생의 아픔이 곧 부처님의 아픔이듯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모든 인류가 희망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3일 봉은사에서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도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 법문했다. 원행 스님은 호국불교 정신에서 발현된 나라와 세계평화 의지를 역설하며 불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촛불을 밝혔다. 홍법사는 3월 3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평화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No War Please'라는 메시지를 담은 촛불을 점등하며 홍법사 사부대중은 평화를 기원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불자와 국민들이 기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 종단 · 단체들의 성명 발표도 이어졌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쟁 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온 인류가 평화의 소중함을 나누는 세계일화의 인연공덕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3월 2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봄날이 깃들길 기원했다. 이들은 "불제자들은 전쟁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길 정성 들여 기도해야 한다"면서 "인류의 공존공생을 염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실천행동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종단 30곳이 소속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성명을 내 우크라이나 침략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 하나 돼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UN에게 전쟁종식을 위한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 이들은 "약소국도 주권을 행사하며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공생하는 국제사회를 위해 모든 국가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태고종과 관음종도 성명서에서 "21세기 현대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온 인류와 불교도의 이름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당장 멈춰줄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앞서 2월 28일에는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성명을 내고 "전쟁과 총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KCRP는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면서 "정의로움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의사는 평화를 위한 인류의 위대한 연대"라고 밝혔다.

노덕현 · 임은호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취지문

–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하여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겠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은 가정, 교단, 사회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토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 포교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과 인권의식이 크게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시 종단과 사찰, 단체 등에서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단의 제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대변하고 종단 위상에 걸맞게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종단은 사부대중 공동체로서 출가 대중과 재가 대중의 상호 존중과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교원이 설립한 여성조직의 경우 몇몇 이사진들의 주도로 활동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종단의 지도 방침을 거부하며 포교단체에서의 해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역시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여성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전법의 현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 불자가 주축이 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대표 여성단체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더 큰 포부와 조직적 대안을 가지고 지난 20년의 역사를 품어 안으며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종단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지역별 직능별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먼저 1080인의 발기인을 모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오는 4월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포교원은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대표적인 포교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각계각층의 여성불자를 조직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고 열린 태도로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교계 여성불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속에서 정부 및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가며 활발한 대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 벗어나게 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나게 한다."(종단본 불교성전)고 하셨습니다. 종단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와 1080 발기인에 적극 수희동참해 주길 당부합니다.

불기2566(2022)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1080설립발기인을 모십니다

◆**모집기한** : 불기2566(2022)년 2월 21일(월) ~ 3월 18일(금)

◆**동참조건** :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하는 전국의 여성불자 (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

◆**동참방법** :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1080발기인 참여 동의서 다운로드(http://www.buddhism.or.kr) 작성 후 문자, SNS,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3월18일(금)까지 전송. (모바일 참여동의서 제출 가능)

※보내주실 곳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화 02-2011-1893 팩스 02-720-7065
이메일 hy@buddhism.or.kr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 전화 02-2011-1893

기후위기 실천 통해 대응 행동 본격화

조계종, 1월 24일 은해사 시작으로 교구 동참

백양사 마곡사 금산사 등 잇따라
선언문 낭독 · 불교대학 강의 개설
신도 교육과 매뉴얼 보급 등 지원
온라인 SNS 홍보 활성화도 눈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기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전국 교구본사 · 서울 주요 사찰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천운동에 나서고 있다. 올 초부터 백양사를 비롯해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들은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 을 발표하면서 탄소제로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한해 동안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 한국 정부, 시민 · 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신년기자회견(1월), 부처님오신날 봉축사(5월), 세계 환경의날 담화문(6월)을 통해 불교적 실천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12월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포함한 교역직 스님 전원이 기후위기 특강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결의를 다졌다. 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사회국장단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을 함께하고 사찰 단위의 활동을 논의해왔다.

이번 실천운동은 제10교구 은해사(주지 덕조)가 1월 24일 종무회의 후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본격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법회가 축소돼 내부적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교구장 스님과 국장단 스님들이 선언문을 낭독했고 차후 상황에 따라 불교대학과 신행단체도 선언문 낭독과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제6교구 마곡사(주지 원경)는 2월 19일 정월대보름척사대회에서 신행단체장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실천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동참한 대중들은 생명존중과 소욕지족 사상을 범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친환경 운동의 핵심이라는 전제 하에 △육류소비 줄이기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 세제 적게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마곡사는 각종 법회 시 사부대중 실천 동참을 독려하고 불교대학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는 2월 15일 대웅전 앞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적게 소유하고 나누며 살기 △탄소중립 위한 절약 생활화와 일회용품 ·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실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기 △녹색지구 위한 사찰림 가꾸기 등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는 2월 19일 전북혁신도시 수현사 강당에서 개최된 교구종회에서 자연과 더불어 수행하며 적게 소유하고 절약 생활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앞장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금산사는 정기법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법하고 세부계획을 꾸준히 안내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탄소중립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금산사는 신도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산사는 2월 19일 교구종회에서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에서는 가장 먼저 도선사(주지 태원)가 2월 5일 법회 후 '지구와의 약속! 대한불교조계종과 도선사가 함께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살림 실천선언식을 진행했고 봉은사(주지 원명)는 2월 9일 대중들과 함께하는 실천 선언문 낭독으로 정초기도법회를 회향했다.

이밖에도 쌍계사와 월정사, 선운사 등도 실천선언을 하고 각 사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19교구 화엄사(주지 덕문)가 4월 2일, 화엄살림법회에서 지역 생협등과 연계해 실천선언식을 진행하기로 했고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 진관사(주지 계호) 등도 코로나19 추이를 검토해 동참할 계획이다.

중앙종회 224차 임시회, 3월 28일 개회

2월 28일 연석회의서 일정확정
결산감사 · 원로회의 의원 추천
4월 7일 종교편향 주제 토론회



원로회의 의원 최대 9명 추천의 건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4차 임시회가 3월 28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2월 28일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 종책모임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연석회의를 열어 제224차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사진>

이에 따르면 임시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개원해 4월 1일까지 5일 회기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인 만큼, 추대법회 당일 이전까지 안건을 모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3월 8일 소집공고 후 안건접수는 3월 21일까지, 총책질의는 3월 23일까지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사찰 ·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주요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원로회의 의원은 20명으로, 이중 차기 종정예하로 추대된 성파 스님을 비롯해, 올 4월 30일 세민 스님, 정련 스님, 지성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공석으로 후임 원로의원 추천의 건이 다뤄진다.

종법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직할, 용주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화엄사, 선운사 등 최대 9명의 원로의원 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과 소청 심사위원 선출의 건, 총립학교 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 인사안도 다룬다. 한편 중앙종회는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를 4월 7일 개최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체제 돌입

총무원 · 선관위, 3월 3일 일정공고

3월 29일 총무원 청사에서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3월 16일~18일
선관위 위원장에 현묵 스님 선출
"엄정중립·공정관리로 선거 실시"

법화종이 제20대 총무원장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종단 내홍으로 수년간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선거는 총무원장 서리체제에서 마련한 종단 안정의 기틀을 토대로 완전한 정상화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인만큼, 일체 논란의 여지없이 원만회향해 무탈하게 차기 총무원장 집행부 출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총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원진은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로, 일체의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본종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묵 스님)은 3월 3일 '제20대 총무원장 선거 실시일정 및 선거시행규칙' 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는 3월 29일 오후 2시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진행된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임채곤) 스님의 제20대 총무원장 당선이 법원에 의해 완전히 무효로 확인되는 등 법적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종단 미래를 이끌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한다"고 공식선언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이며, 前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에 대한 치탈도첩의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신임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을 포함한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선거공고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총무원 청사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가 직접 방문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은 종헌종법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기산일은 현행 민법 기준으로 한다. 연령 만50세 이상, 법랍 만20년 이상, 법계 2급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하며, 타종단에서 전종한 경우 입종전 소속 종단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 본종 입종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본종 총무원은 2월 22일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는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4인 가운데 위원 3인의 사퇴 및 사임 이후 유일하게 남은 위원인 보선 스님이 2021년 12월 사임 및 해촉됨에 따른 것이다. 신임 선관위원장은 현묵 스님(총무부장)이며 위원은 해월 스님(감찰부장), 승일 스님(강원교구 종무원장 서리), 향산 스님(김창교구 종무원장)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현묵 스님은 "공정한 선거 사무처리를 본종 종헌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도와 종도의 뜻을 대의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뜻이 선거를 통해 있는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종회의장 서안 스님)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 회기로 진행된 제106차 정기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시행규칙과 선거일정을 추인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신안군 '1004섬' 문제 지속대응 당부

종교편향 특위, 7차 회의서
신안군 종교편향 대응 논의

신안군이 기독교 예수제자인 12사도의 명칭을 딴 예배당을 직접 건립 · 운영하는 등 도 넘은 종교편향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특위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위(위원장 선광)' 는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사회부로부터 신안군 '1004섬' '12사도 순례길' 등 현황보고를 통해 대책안을 논의했다.

사회부장 원경 스님의 현황보고에 따르면 사회부는 현재 신안군의 종교편향성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2월 14일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소악도 기적의 순례길 사업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안, 예산 집행 내역, 12예배당 토지소유 현황 및 신안군 매입과정, 예배당 관리 및 운영주체, 증도 홀리랜드 조성 사업계획서 등이다. 그러나 신안군 측에서 공개 마감기한을 연장해 이에 대한 피드백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부는 신안군에 △신안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 및 신안군측의 종교편향성 해소 방안 제시 △특정 종교를 연상시키는 다리명칭의 변경 △12사도 순례길 명칭 삭제 및 특정종교 상징물 제거 등을 요구할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스님들은 현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행정상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강경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종헌특위는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키로 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와 관련, 세부주제를 확정했다. 제1주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종교편향 사례와 대응전략' 제2주제는 '방송 및 언론매체의 종교편향 사례와 대응전략' , 그리고 제3주제는 '국가법령 및 정책에 의한 불교재산권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으로 정해졌다.

토론회는 중앙종회의원 연수 형태로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중앙종회 사무처에 위임해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600만 참가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업 '풍성'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기념사업 계획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로 공익 강화
저소득층 · 장애인 등도 문호 '활짝'
5월 중 스무살 축하행사 개최 예정
템플스테이 발전 위한 연구 진행도
20주년 기념 엠블렘 · 슬로건 선봬

2002년 5월 11월 직지사에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템플스테이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다양한 20주년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3월 2일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20주년 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기자회견문 배포로 대체했다.

원경 스님에 따르면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된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세계인과 함께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2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다.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는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스무 살을 맞은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스무살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등 특별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어르신, 장애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힌 '마음 더하기 템플스테이'도 무료 · 할인 운영한다.

또한 '사찰음식 마음 더하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찰음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사찰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등 사회공익 · 나눔 템플스테이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원경 스님은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20년간 함께한 국민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같이 나누겠다"고 밝혔다.


원경 스님은 3월 2일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엠블럼.

2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년사' 발간 사업을 비롯해 △20주년 성과발전방향연구 △템플스테이 건강치유효과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성, 중장기 목표를 진단하며, 템플스테이의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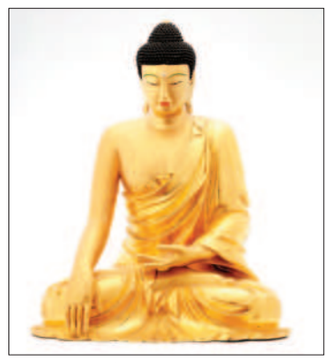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내행사로는 '체험 AGAIN 2002'를 통해 새로운 불교문화체험의 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원경 스님은 "이제 스무 살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는 K-컬쳐의 순풍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돛을 활짝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20주년을 기념하는 템플스테이 엠블럼과 슬로건을 선보였다. 템플스테이 20주년 로고는 템플스테이의 자산인 자연 · 불교 · 사찰을 선으로 표현했으며, 새로운 20년을 향한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20주년 슬로건은 '템플스테이 20년 마음을 더하다'이다. 이는 명상과 사색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깊이의 공간으로서의 템플스테이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2월28일 지정 예고
조계사 첫 보물 지정 의미 커
"전각 조성해 주불로 모실 것"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된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중국 명나라 티베트 양식의 불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을 비롯한 조선시대 전적 등 5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조선 15세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본래는 전남 영암 도갑사에 봉안됐다. 이후 1938년 6월 조선불교 총본산 건립에 맞춰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이안(移安)됐다. 불상 이안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배척하고 조선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 확보를 열망한 당시 불교계의 염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한국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 불교미술사적인 면에서도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의미를 갖는다. 독특하게도 중국 명나라 티베트 불상 양식을 수용하고 있어서다.

목조여래좌상이 보물 문화재로 확정되면 조계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조계사는 진행 중인 성역화 사업에 목조여래좌상을 주불로 한 새로운 전각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지난 200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6호 지정됐으며, 22년 만에 보물로 지정받게 됐다"며 "조계사 사부대중에겐 커다란 경사"라고 밝혔다. 이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조계사 성역화사업에 맞춰 보물 목조여래좌상을 주불로 한 새 전각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처님오신날 직후로 보물 지정 기념 법회도 봉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 정책 수립 나선다

3월 3일 불교문화진흥위 위촉
전문가 8명 참여… 정책 논의



변화된 사회문화 정책에 따른 불교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조계종이 적극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1기 불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

불교문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제정된 '불교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구성된 총무원 직속 기구로, 불교문화 정책 수립 전반을 책임진다. 이는 보존에서 활용으로 변화하는 사회 정책에 맞춰 종단 문화 종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제도와 종단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불교문화비전 2030' 수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학술, 문화, 정책, 미디어 등 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이상구 한국예종 예술문화정책연구원장 △이우승 동국대 대우교수 △이윤수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김정희 KBS PD(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김종옥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문화부장 성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도현 스님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성공 스님이 맡았다.

위원 위촉 이후 원행 스님은 "위원회 구성이 오랜 시간 미뤄져 왔는데 이제 이뤄져 다행이다"며 "변화하는 사회 정책들을 잘 분석해 좋은 불교문화 정책들이 입안 · 제정되길 바란다.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위드코로나 시대, 복지관도 일상 회복 기지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복지관들이 휴관 기간 중 야심차게 준비해 온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스마트 복지'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실시할 주요사업에서는 스마트복지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인 '비콘스페이스'와 온라인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이러닝 시스템 '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맞춤형 마이페이지 '나.비' 지능형 회원관리시스템 '복지i' 커뮤니티형 기획프로그램인 취향발굴단 라라라(Like Live Life) 사업을 신설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

서울노인센터, '스마트복지' 활개
탑골미술관 등 대면 운영도 재개

대면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며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5월 19~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관장 희유 스님은 "어디서든 어르신이 센터와 연결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복지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종로노인, '장금이' 전국에 진출
고령친화 일자리 가능 체제 전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문화의 중심 1번지'를 목표로 서울 종로에서 노인 맞춤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온오프 활동을 전개하고 신(新)노인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특히 종로노인복지관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는 '장금이 장맛'의 온라인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고령친화 일자리 지속 가능 사업 전개는 이웃 기관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관은 장 체험관 및 장 카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시설 개축 등으로 운영을 멈췄던 플러스카페 1~3호점도 운영을 정상화하면 일자리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장 정관 스님은 "2022년은 5개년 중장기 목표의 마침표를 찍는 한해로, 인권가치 중심 · 소통 · 공존 · 미래예측이라는 목표 아래 달려온 추진과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5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2학년도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동화사 승가대학

■ **모집대상** : 사미스님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 **모집기간** : 불기2566(2022)년 4월 3일까지
■ **특 전** : 1) 월 보시금 및 소임비 지급
2) 성운대학교 사회복지과 수학 지원 (학기당 장학금 지급)
3) 해외 성지순례(사집반, 대교반)
4) 모든 신입생 대상 최신형 노트북 지급
5) 전 강의실 에어컨 완비 및 책·걸상 구비
6) 주 2회 병원 외출 허용 (+ 대구 시내 접근성 편리)
7) 주 1회 체육운력 시행
■ **문 의** : 승가대학 : 053)980-7925
학감 여운스님: 010-7626-5558

※ 타 종단 스님 수강 가능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스님도 가능)

동화사승가대학장 **종인**

율학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전문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 **모집인원** : 개방형 00명, 상주형 00명
■ **자 격** : 1) 기본교육기관은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한 자.
2) 불기2566(2022)년도 봄 비구계 수계예정자.
3) 타종단스님도 수강 가능(통학)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 증명서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율원거주 학인만 해당)
6) 사진(3×4) 3매 7) 연구계획서(연구과정 지원자에 限)
■ **등 록 금** : 1학기당 400,000원(개방형 전문반 학인에 한함)
※ 사중거주 학인은 등록금 면제
■ **모집기간** : 불기2566(2022)년 3월 18일까지(추후 개별 공지함)
갈마 면접 : 3월 23일 오전10시 비로전
■ **신청방법** : 율학승가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3)980-7955, 7983 율감 010-5665-5010

팔공총림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대학원장 **현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스님 : 비구, 비구니(타종단 스님 수강 가능)
재가자 : 5계를 수지한 신도
■ **학 제**
1) 학 제 : 2년 4학기, 주 1회 수업, 년 2회 2박3일 특강
2)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8시
3) 수업장소 : 보현사 내 보광명홀 (대구시 중구 문우관길 65)
4) 수 강 료 : 한 학기당 50만원
■ **수료자 특전**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 **교과과정**

	과 목	강 사	특 강
1학년1학기	선 요	선지 스님	1차 : 미정
			2차 : 미정

■ **접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년 1월 1일 ~ 3월 25일
장소 :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사무처
문의 : 053)252-3445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2)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스님에 한함) 3) 반명함판 사진 2매
■ **개강일자** : 2022년 3월 7일(월요일)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35) **전화** : 053)980-7900 **홈페이지** : www.donghwasa.net

포교원, 첫 포교결집 순례…'도심포교' 기치

2월 27일 포교원력 결집 순례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스님과 300여 포교사들 참여해 발원

봉은사서 미타사 5.8km 행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필두로 불자들이 강남도심을 순례하고 있다.

"우리는 포교사, 한국불교 지킴이, 수행은 포교, 포교는 수행!"

"스님을 모시고 도심포교에 나서자!"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중심인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포교사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방식의 전법포교가 중단된 3년 만에 포교현장 일꾼인 포교사들이 뭉쳤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2월 27일 포교사단(단장 김영석)과 서울 강남 봉은사부터 강북 미타사까지 '전법ON,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포교사 걷기 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순례에는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및 인천경기지역단 300여 포교사들이 참여해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개발한 도심 순례길인 허응당 보우의길을 걸으며 새해 도심포교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입재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3년 만에 이뤄진 포교일꾼들의 결집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범해 스님은 "각 분야의 포교결집 중 포교사단과 첫 번째 행사를 갖는 이유는 포교사들이야 말로 한국불교 전법 포교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수행을 통해 전법 포교의 마음을 가다듬고, 불자로서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달라. 순례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단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매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종단에서 만든 순례길을 포교사들이 처음으로 걷게 됐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전법포교에 나섰지만 함께 수행하고 이를 통해 원력을 쌓는 기회는 드물었다"며 "13개 지역단이 각 교구본사 스님들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행활동이 함께 이어지는 전법행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포교사들은 포교부장 선업 스님의 구호 선창에 따라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행선은 묵언으로 스마트폰 사용 등도 금지됐다.

강남 봉은사를 출발한 포교사들은 청담역과 압구정역을 거쳐 동호대교를 지나 옥수동에 위치한 미타사까지 5.8km를 2시간여 동안 걸었다. 당초 예상한 1시간 여보다 신호대기 등으로 지체됐지만 행선에는 무리가 없었다. 포교원 측도 이날 순례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봉은사부터 조계사까지의 보우의길 중 절반만 소화하도록 했다.

순례에 참여한 포교사들은 순례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전법도반들의 모습에 더욱 큰 힘을 받았다고 소감을 풀어놨다.

박은호 인천경기지역단 수석부단장은 "2년 반만에 도반들을 만나니 기쁘다. 포교활동하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실내가 위주였다. 대중들이 시내서 똑같이 같은 법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불자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올림픽 불자선수 여러분이 국민 자랑"

3월 2일 최민정 국가대표 등 원행 스님, 범해 스님 예방

동계올림픽선수단은 3월 2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에게 덕담을 들었다.

예방에는 최민정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은정 컬링 국가대표, 원윤종 봅슬레이 국가대표, 탑신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등 선수들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홍근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이혁렬 바이애슬론연맹 회장, 김용빈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정광열 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올림픽정신과 스포츠정신으로 맞서서 쾌거를 이뤄낸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선수들에게 단주를 채워주고 템플스테이 체험권, 사찰음식 4인 시식권, 금 한돈 삼보륜 뱃지를 선물했다.

이어진 조계종 포교원 예방에서 108단주와 국가대표선수 기도문 등을 전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메달의 유무를 떠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성북동 길상사 법정스님 12주기 추모

법정 스님 원적 12주기 기일을 맞아 청빈하고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2월 26일 경내에서 '법정 대종사 12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자 했던 스님을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조계총림 송광사 수련원장 현묵 스님은 추모사에서 법정 스님과의 추억담을 전하고 "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천하의 법정 스님'이라는 호칭을 듣기까지 스님의 삶은 말 그대로 '철두철미였다'"고 회상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러면서 "수행과 포교의 삶을 살다 열반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늘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법정 스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법문영상도 소개됐다. '심여수(心如水)'를 주제로 한 참스승의 가르침에 사부대중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임은호 기자



불교스포츠 '17회 달마오픈' 성료

불교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노우보드대회인 달마오픈 챔피언쉽대회(이하 달마오픈)가 2월 27일 용평리조트에서 3년 만에 펼쳐졌다.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이 주관한 제17회 달마오픈에는 많은 이들이 참여해 3년 만에 선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달마오픈 조직위원장 호산 스님(사단법인 이웃을돕는사람들 대표이사)은 "달마오픈은 불교계 최대의 스포츠 대회로, 20여 년간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스노보드를 알리고 우수한 꿈나무를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네팔 출신 설래 스님 "이젠 한국인으로 전법활동"

법무부 2월 24일, 국적증서 수여

"한국불교문화 전파에 힘쓰겠다"



네팔 출신 설래 스님(타망 다와 치링 스님,사진)이 이주노동자 돌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설래 스님은 2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2007년 양주 석굴암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온 설래 스님은 서울 정릉 봉국사에서 네팔불자모임을 운영하며 이민자들의 원만한 국내 적응을 돕는 활동을 펼쳐 선정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청소년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스님은 2013~2017년 불교스카우트연맹 등에서 청소년 지도법사를 지냈고 '훈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는 등 자기계발에도 힘썼다. 학업에도 열중해 2017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현재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대중과 어린이 포교, 한국불교문화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설래 스님은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기쁘다"면서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인터뷰 올림픽 선전 뒤엔 모정불심이

올림픽 금메달 '최민정'·모친 '이재순' 불자

어머니 봉은사서 10년간 봉사

조석으로 선전 기원기도 올려

올림픽 선전으로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뒤에는 오랫동안 뒷바라지해온 어머니의 불심이 있었다.

2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만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는 메달 획득의 최고 공로자는 바로 '어머니'라고 했다.

최 선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2018 평창올림픽에 이은 올림픽 2연패이다.

어린시절부터 최 선수의 뒤에는 모친 이재순 씨의 정성이 있었다. 전지훈련 등을 떠나면 기도로 선전을 기원했다. 최민정 선수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오며 재적사찰을 서울 봉은사로 옮겼다. 이재순 씨는 특히 10년 이상 봉은사 종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올림픽 기간에는 거의 봉은사에 살다시피하며 조석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 씨는 "딸이 부상없이 경기를 치렀고,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다. 다 부처님 가피"라고 말했다.

최 선수는 "시합에 나설 때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더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다행이 대회가 잘 마무리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성적에 대한 것보다 인터뷰 내내 건강하게 선수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부담이 될까봐 처음 스케이트를 탈 때 마음 그대로 즐기고 오라는 손편지를 써줬다.

최 선수는 귀국 후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곧 있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해 다시 훈련에 매진한다. 간절한 어머니의 바람과 함께 모녀는 손을 꼭 잡았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제8기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 대 상 :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 수강기간

구 분	교육 (총 15주)	워크숍 (1회)
교육기간	2022년 3월 26일(토) ~ 7월 16(토)	2022년 7월 23일(토)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 9:00 ~ 21: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단 워크숍은 대면 출석만 가능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 모집마감 : 2022년 3월 23일(수) 17시

◈ 수 강 비 : 108만원(교육비 98만원 + 워크숍비용 10만원), 카드·분납 가능

◈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E-mail(jabi3719@daum.net) 접수
※교육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특 전 :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2급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
3. 교육비 할인(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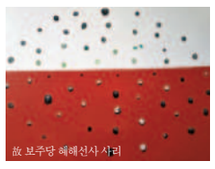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전화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흥륜사 故 寶珠堂 慧海 노스님 사리친견법회



故 보주당 혜해선사



故 보주당 혜해선사 사리

이차돈 순교지로써 신라 최초 사찰인 경주 흥륜사에서는 2020년 입적하신 寶珠堂 慧海 禪師의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열반 후, 220과의 사리를 남기신 비구니계의 별, 慧海 노스님의 생전 수행을 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생전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게 될 자리에 걸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기 2566(2022)년 3월 향기로운 날
흥륜사 사부대중 합장

사리함 봉안기념 특별초청법문 : 혜국큰스님 (4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흥륜사 금당 선방
- 기간 : 3월 19일 ~ 31일 까지 (오전 10시~ 오후 5시)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 주관 : 경주황룡원신라문예센터
- 후원 : 국제신문, 부산일보,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BTN불교TV, BBS불교방송, e-붓다, 맑은소리맑은나라
- 문의 : 흥륜사 054.773.3387 / 010.5616.3882

장기기증, 새 생명 선물하겠다는 '자비서약'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① 장기기증 Q & A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불교계 유일 희망등록 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www.lisa.or.kr)에서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가능해요.

장기기증은 뇌 손상으로 호흡과 순환중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뇌사 상태일 경우 가능하며 가족의 동의를 거쳐 진행돼요.

장기기증 수술 후 시신은 흔적을 최대한 깨끗하게 봉합해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염습과 입관 후 장례식장으로 모셔요.

올해 2월, 근무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남성이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안전센서 불량으로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한 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환자의 보호자는 논의 끝에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심장과 폐, 간, 신장 등이 6명에게 이식됐다. 환자와 가족의 숭고한 결정 덕에 죽음 문턱에 있던 환자 6명은 새 생명을 선물받았다.

장기 부전의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 실천 장기기증.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희망등록자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 만큼,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필요한 때다. 뇌사 시 장기기증의 의미와 절차, 희망등록과 지원현황 등을 Q&A로 살펴본다.

Q 장기기증이란 무엇인가요?

장기기증은 뇌사기증과 사후기증 등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뇌사기증은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나 뇌혈관질환 등 질병으로 뇌사 상태가 됐을 때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사후 기증은 사망한 후 안구 기증이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간 기증도 있는데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타인의 기증으로 구분됩니다. 장기기증은 나이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뇌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뇌사란 뇌 손상으로 호흡 및 순환중추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필연적으로 심박동이 정지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단 식물인간은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에서 수년 이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Q 뇌사 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말초혈, 손 · 팔, 발 · 다리 등이 가능합니다. 뇌사기증자 한 명이 최대 9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Q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입니다. 홈페이지(www.lis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전화(02-734-8050)와 팩스(02-734-8052), 방문 등으로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증을 새로 따거나 갱신할 때 장기기증 표시가 찍히게 됩니다.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해서 꼭 기증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사로 인해 사실상 사망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고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기에 실제 기증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희망등록은 자신의 장기 일부를 이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줘 새 생명을 선물하겠다는 '자비서약'입니다.

Q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 실제 기증 절차는요?

뇌사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 상황 보고가 됩니다. KODA에서는 병원으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환자 보호자와 면담을 갖고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이 포함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뇌사여부가 판정되면 장기기증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사망자 23만 명 중 1%인 3000명 정도의 뇌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기증 시점에 가족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기증 의사가 있다면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자신의 의향을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본인이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기증 시점에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희망서약 후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뇌사자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는요?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합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15시간 이내에 기증 절차가 마무리되고 염습 및 입관 후 발인에 맞춰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Q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위한 지원 제도는요?

장기기증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예상범위 내에서 유가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5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2018년부터 매년 9월 둘째 주를 '생명나눔주간'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추모행사를 개최해 기증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운동본부는 매년 6월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 특별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천도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으로 얼굴도 모르는 이를 위해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Q 국내 장기기증과 희망등록 현황은 어떤가요?

지난해 12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20년 4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419명에 그쳐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2016년 2만 4611명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만 826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대기자 수가 2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식 건수가 적은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희망등록 역시 망설이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 조직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61.6%가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참여 비율이 낮은 사유로는 주저 24.9%, 방법을 알지 못함 24.8%, 주변의 반대 15%, 복잡한 절차 5.6%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하루 평균 5.9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기증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선택"
장기기증 희망등록
홈페이지 www.lisa.or.kr
전 화 02)734-8050
팩 스 02)734-8052

생명나눔 28년 史

생명나눔 운동, 불교계 넘어 우리 사회 널리 확산

1994년 설립 불교 유일 등록기관
2005년 일면스님 이사장에 취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8만여 명
환우 치료 지원도 40억 원 달해



1994년 '생명공양실천회'(초대본부장 법장)로 시작한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는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등록기관이다. 설립 이듬해인 1995년,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 교육기관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 5월 '대구 가스폭발사고 중경상자를 위한 헌혈 캠페인'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웃종교에 비해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불교계 안팎 동참 열기는 뜨거웠다. 설립 전 서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이 안구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봉녕사, 운문사, 동학사 등에서 비구니 스님 159명이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응원을 보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6년 1월 '백혈병 환자 성덕 바우만군 살리기 운동' 전개와 함께 자비의 헌혈봉사단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생명을 나눕시다'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 캠페인에 이어 대학생 장기기증 동아리 'Life-Share'도 결성했다. 이런 캠페인들은 스님과 불자들은 물론 학생, 군인 등 전 국민에게 생명 존엄과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일면 스님이 2005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2000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 이식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일면 스님은 '이생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은덕을 갚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사장 소임을 맡았다.

일면 스님은 생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다양한 활동은 전 국민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2021년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밝힌 등록자는 8만 793명이다. 설립 첫해인 1994년, 22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후로 매년 증가한 등록자는 2000년 3110명에 달하더니 2014년에는 6420명을 달성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주춤하긴 했지만 한 해 장기기증을 하는 이가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8만 명이 넘는 희망 등록자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장기기장 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인원도 5만 명을 훌쩍 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집목표 100%를 달성하며 53명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은 희망등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금음악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선음악회 등을 개최해 수익금을 기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감싸 안았다. 이달의 환우를 선정, 난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품고 그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2021년까지 1064명의 환자에게 전달한 치료비가 40억 원에 달한다.

헌혈증 기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며 불교계 자비 정신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후원 내역은 매월 1만 5000부 이상 발행하는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운동에 대해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값진 보시"라고 설명했다. 소중한 생명을 타인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일면 스님은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어르신복지 전문 '문현노인복지관' 개관

2월 28일, 문현노인복지관 개관식
불교계 문수복지재단 수탁 책임운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지상4층 규모 휴게공간 · 체력실 등
취미여가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어르신 전문 여가 시설로 자리매김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



문수복지재단은 2월 28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문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어르신들에게 전문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부산 남구 문현동에 신축 개관한 '문현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

문수복지재단은 2월 28일 문현노인복지관 일대에서 '문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복지관 운영을 시작했다.

문현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건강생활 프로그램, 취미여가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활기찬 노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사랑방 역할을 대신한다.

개관식은 풍물패의 공연으로 시작해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복지관 영상 상영 △법인 대표이사 인사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 박재범 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 백석민 남구의회 의장, 조용광 대한노인회 부산남구지회장, 박시우 남구노인복지관장, 변정희 문현노인복지관장 등 대중 50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으며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해 행사를 진행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기념사에서 "문현노인복지관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한다"며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대표 주역들이다. 그분들의 노력과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지는 이어져야 할 것이며 문현노인복지관은 이 정신을 대표하는 모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수복지재단은 부산 남구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다. 부산 남구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동반자로 노인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을 전했다.

변정희 문현노인복지관 초대관장은 "문현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 집처럼 편안하게 시설들을 누리며 여가생활을 활기차게 꾸려나가시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문수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 문현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개관을 준비해왔다. 문현노인복지관은 부산 남구청이 2016년 1월 남구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계획을 세웠고 부산시 특별교부금 및 자체재원 등을 확보해 신축했으며, 지난 1월 준공을 마쳤다. 총면적 939.43㎡의 시설은 지상 4층으로 1층은 식당 및 휴게 공간,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프로그램실, 3층은 소강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4층은 대강당 등이 위치한다.

문수복지재단은 국내외 구호활동을 원력으로 출범한 (사)위드아시아 대표이사 지원 스님이 대표이사이다. 문수복지재단은 전문복지기관으로 노인 및 지역민들을 위한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문현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불교계 대표 전문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2월 26일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법당에서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前 교육부 차관, 정종원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장, 김선조 부산공무원불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예불과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승 · 재가 내빈들의 헌화, 인사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은 맑고향기롭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님이시다"며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우리의 정신을 늘 맑게 하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이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주당 혜해 스님 사리친견 법회

3월 19일~31일, 흥륜사 금당선방


흥륜사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흥륜사 금당선방에서 故 보주당(普珠堂) 혜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주지 법진)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흥륜사 금당선방에서 故 보주당(普珠堂) 혜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혜해 스님은 한국불교 비구니 승단의 정신적 스승이자 후학들에게 수행정진과 검소한 삶으로 모범을 보인 생불(生佛)로 불렸다.

혜해 스님은 1921년 4월 27일 평안북도 정주군 안흥면에서 출생, 1944년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출가했으며 지난 2020년 5월 29일 세수 100세 법랍 7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다비 후 사리 200여 과가 수습돼 화제가 된 바가 있으며 금강산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던 소망을 남기기도 했다.

혜해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 수행 중 해방을 맞았고, 1946년 10월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왔다. 스님은 참선 수행으로 대중을 가르치고 교화하며 이끌었다. 울산 석남사 등 여러 선원에서 수행하고 경주 흥륜사에 천경림선원을 개설해 납자들의 수행을 이끌었다.

흥륜사는 신라시대 최초의 사찰로 알려져 있다. 또, 경주의 상징인 신라인의 미소로 불리는 수막새가 출토된 곳이기도 하다.

혜해 스님은 당대 선사였던 향곡 스님, 성철 스님과 각별한 교유를 갖고 탁마를 이어갔으며 흥륜사를 수좌들을 위한 수행도량으로 발전시켰다. 북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당시에는 세납 90세의 고령에도 신계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사시 마지를 올리고 통일과 평화를 위해 천일 정진 수행했다.

흥륜사는 "후학들이 스님의 생전 수행을 본받고자 사리함을 주조하여 사리를 모시기로 하였다"며 "흥륜사 대중 스님들은 스님의 사리를 사리함에 모시기 전 사부대중에게 사리를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흥륜사는 혜해 스님 사리함 봉안기념 혜국 스님 특별초청법회를 4월 24일 오전 10시 흥륜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054)773-3387

범어사, 3 · 1운동 103주년 기념식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


범어사가 3월 1일 범어사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3 · 1운동 10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3월 1일 범어사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3 · 1운동 10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3 · 1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이끈 범어사 스님들과 명정학교(현 금정중)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기념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보운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동참했으며 서종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 등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다 △삼귀의 및 반야심경 △추모 입정 △헌향 △기념사 △헌화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주지 경선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침략과 전쟁으로 목숨과 자주권을 잃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며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었고 1919년 3월 1일 모든 민중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의 물결은 이곳 부산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범어사 스님, 명신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큰 파도를 만들었다. 여러 스님들과 민중들은 일제의 탄압과 폭력에도 꿋꿋이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매해 3 · 1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마련해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법석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종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독립된 국가에서 후손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범어사 스님을 중심으로 명정학교에서 불같이 일어난 부산 만세운동은 동래시장, 구포시장으로 번져 부산지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가 되었다. 오늘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나라의 소중함을 새기며 후손들에게도 호국의 정신을 물려주겠다는 원력을 되새긴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30돌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마음 불사' 이어져

2월 27일 30주년 기념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92년 마산서 개원, 30년 불사
경남중부권 불교 포교에 매진해
"정진으로 성장하는 도량될 것"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이 대행 선사의 원력을 받들어 불퇴전의 원력으로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은 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지원장 혜춘 스님을 비롯해 양호성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고문, 최종열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마산 등 경남 중부권 포교 매진

1991년 6월 28일 경남여성사회복지관에서 봉행된 '대행 큰스님 마산법회'로 결성된 모임이 시금석이 된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개원 이래 마산 등 경남 중부권 포교에 매진해왔다.

1992년 2월 29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 147-1번지에서 마산지원으로 개원했으며, 개원법회 이후 열린 대행 선사 초청 법회에는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동참했다. 1994년 12월 11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으로 이전했고, 1995년 12월에 현재 위치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일대를 매입해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을 개원했다.

1998년 3월 8일에는 신축법당 기공식 및 화합재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하는 등 불사들을 이어가며 수행 도량의 면모를 다졌다. 2000년 4월 30일 해수관음상 점안식 및 영탑공원 준공법회, 2009년 9월 29일 신축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고, 2018년 본관 리모델링, 2019년 2월 24일 대웅전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이어가며 일대 성역화 불사를 마무리했다.

이젠 '마음 불사'로 성장할 때

3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이뤄진 지난 30년 불사의 역사를 되새기고 "이제는 '마음의 불사'를 통해 도량을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중남부지원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사부대중의 정성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도량이 성장한 만큼 사부대중도 함께 성장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개원 30주년을 맞아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혜솔 스님은 축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도량을 정비하고 닦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주인공 자리가 마련됐다면 그것이 이 도량이 주는 선물"이라며 "앞으로 '마음의 불사'에 매진하며 더욱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지원장 혜춘 스님은 "오늘 법석은 불사에 함께 한 사부대중의 신심이 느껴지는 자리"라며 "무엇보다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 대행 선사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정성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경남지원 신도들도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양호성 고문은 감사 인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도량은 깊고 넓은 한마음으로 이뤄진 우주법계의 통신처로 간절히 구하면 허공의 무한 에너지도 끌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다"며 "중부경남지원은 지난 30년의 불사로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도량이 됐다. 이곳에서 묵묵히 정진해 본래 밝은 한자리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열 신도회장도 인사말에서 "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을 할 수 있게 이 도량을 세우신 대행 선사의 원력을 마음에 새긴다"며 "앞으로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호남불교계, "국립공원 제도가 문제, 개선하라"

민주당 불교정책 간담회서 요청



호남불교계가 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지역 불교현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민주당은 3월 1일 백양사(주지 무공) 향적전에서 불교계 공약 설명회를 열고 지역사찰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월 20일 통도사에서 열린 영남권 사찰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다.

'여시아문 신수봉행'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날 불교계 정책간담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자공 스님(송광사 주지), 법상 스님(대흥사 주지),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등 5대 교구본사 주지와 조계종 호남지역 종회의원인 석장, 만당, 설도, 원명, 대진, 향문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도계 스님(수석부회장), 해청 스님(총무부장), 이범식 신도회장 등 출재가 자가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이개호, 김승남, 서동용 의원과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지역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무공 스님, 덕문 스님의 인사말과 김영배 의원의 민주당 불교정책 설명, 스님들의 소견발표,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겨울 산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현안으로 민생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공약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가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에서는 '사찰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합리적 개선', '국가지원을 통한 문화재관람료 제도 폐지', '사찰림의 가치 보존',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정책안이 소개됐다. 또 '연등회, 영산재 전승관 건립', '불교대장경의 디지털화', '반출 문화재 환수와 불교문화재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등 지원방안도 나왔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백양사도 예전에는 자연 농산물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1960년대 국립공원이 지정되며 사찰 규제로 입장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립공원 지정시 불교계 입장도 묻지도 않고, 규제만 한다"고 성토했다.

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은 별개의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찰이 받은 많은 규제 중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규제해온 것이 문제다. 국립공원과 사찰림을 분리해 자체적 활용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사, 복지기관 3곳에 '자비 쌀' 나눔

3월 3일 초하루법회서 전달식
(사)다나·승가원에 年3톤 기부
혜명복지원엔 8톤을 전달키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발원도

호국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가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기관과 단체에 '자비의 쌀'을 기부했다.〈사진〉

서울 도선사는 3월 3일 봉행된 초하루법회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을 위한 자비의 쌀 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을 통해 (사)다나·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는 연간 3톤, (사)혜명복지원에는 연간 8톤의 자비의 쌀이 전달된다.

이번 자비의 쌀 전달은 도선사 신행단체가 보시금을 마련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도선사 신행단체들이 한겨울에 참배객 대상으로 군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번 '자비의 쌀' 기금을 마련했다"면서 "도선사는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시설과 단체에 매년 150여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질 곳이 많고, 미처 도움을 드리지 못한 곳도 많아 지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쌀을 지원받게 된 단체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사)다나는 노숙자에게 먹거리를 나눠주고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께서 자비의 쌀을 지원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정화 승가원 부장은 "승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며 "이번에 후원해 주신 쌀로 저희 장애 가족들과 장애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최근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주지 태원 스님은 새로 임명된 포교국장 본연 스님, 사회국장 관태 스님, 문화국장 인우 스님, 박영근 종무실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능인학원, 능인고 '지혜관' 2월 24일 준공

민족사학 전법도량 능인학원(이사장 도진)은 2월 24일 능인고 씨름부 훈련장 및 특별교실 '지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과 주호영 국회의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동원 총동문회장, 이병철 대구광역시 씨름협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혜관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청과 수성구청 지원 하에 동창회원들의 모금으로 36억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됐다.

지상 3개층, 연면적 1,903㎡의 규모로 건물내부는 씨름부 연습장과 도서실, 다목적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인고는 씨름 명문으로 보다 나은 훈련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서실과 특별 교실, 다목적 교실 등의 교육 공간은 앞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설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 자율 탐구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울산 정토사, 코로나 극복 연주회 열어

2월 26일 정토어울림합창단
시민들 지친 마음 치유 시간



울산 정토사(회주 덕진)는 2월 26일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5회 정토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주지 증관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전기택 정토사 신도회장, 강학수 사무국장 외 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어울림합창단은 강주현 작곡가의 사회로 아침서곡, 브라보 아코디언 앙상블의 백만송이장미, 색소폰 김영찬의 천년의 사랑을 공연했고 E&I중창단도 연꽃법당 등을 선보였다.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우리 정토사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을 의식에 사용하고 현대 음악으로 작곡된 찬불 성악곡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주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치유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민주항쟁 투사 어머니 49재

광주 증심사, 2월 26일 봉행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민주항쟁 투사인 이한열 열사를 어머니로서 뒷바라지하고 또 다른 민주투사로 활동해온 배은심 여사의 49재가 무등산 증심사서 봉행됐다.〈사진〉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는 2월 26일 대웅전에서 故 배은심 여사 49재 막재를 봉행했다. 1월 9일 향년 82세로 운명한 배은심 여사는 1987년 6월 아들 이한열의 사망 이후 역시 민주투사로 살아왔다.

이날 49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유가협 회원, 오월어머니 회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정길 6.15공동위광주본부 상임대표,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前 관장, 한동건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인숙 연세대민동 회장, 박봉주 광주전남추모연대 공동대표, 윤영덕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민주화를 열망했던 그 마음이 바로 5월 광주정신이고 무등산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주 죽림사, 인근 화학공장 신축 반대나서



천년고찰 인근에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화학공장 건립이 추진돼 인근 불자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나주 죽림사(주지 혜문)는 2월 26일 나주시청 앞에서 마을주민 공동대책위원들과 함께 '카본·헥사 제조공장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죽림사 사하촌에 건립되고 있는 화학공장은 2021년 11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시민사회와 지역불교계의 반대로 나주시청에서 건축허가 절차 진행 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죽림사는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농촌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농협영농회, 자율방법대 등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반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혜문 스님은 "차후 화학공장의 분진과 산성비로 인해 사찰 문화재와 수행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공장설립에 따른 사전 주민동의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진행된 적이 없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최민수 씨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비슷한 위험 발생물질을 배출하는 탄소섬유 공장은 마을 주민을 모두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 죽림사는 백제시대인 440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각종 보물 등이 소장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에 햄버거 자판기가…이색시도 화제

혼카쿠지에 설치된 '운세 뽑기 햄버거 자판기'

수익 일부 지역아동에 사용
"지역공동체 핵심사찰" 희망
사찰은 즐거운 곳 인식 바램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한 고찰에 햄버거를 파는 자판기가 등장했다. 일본의 '히로시마 뉴스 TSS'는 2월 24일 주지스님이 직접 고안해 설치했다는 자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4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혼카쿠지(本覺寺)는 일련종 소속 사찰로 히로시마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심 속 도량이다. 지난달 말, 경내 마당에 설치된 '운세 뽑기 햄버거 자판기'가 SNS를 비롯해 지역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자판기를 설치한 혼카쿠지의 주지, 와타베 코유 스님은 "지역에 재미나고 밝은 화제를 일으키고 싶었다"며 "사찰과 햄버거라고 하는 그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하나의 재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는 운세 뽑기와 함께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장치가 간혹 있는데 이것을 햄버거로 바꿔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자판기를 고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직접 각지의 전문업자를 직접 찾아가 제작을 의뢰했다. 코로나19사태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유 스님은 "이러한 시도로 사찰이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되면 기쁘겠다"고 전했다.

경내에 설치된 햄버거 자판기 수익 일부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혼카쿠지는 2016년부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혼자 식사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로 생겨난 이익이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로 다시금 환원되도록 순환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경내에 설치한 햄버거 자판기를 소개하는 와타베 코유스님. **사진출처=히로시마 뉴스 TSS 캡쳐**

코유 스님은 "다양한 수요에 사찰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했다.

네티즌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지역주민은 "지역에서의 소문을 듣고 직접 방문해 봤다. 햄버거의 맛은 솔직히 평범했지만 수익이 아이들을 위해 돌아간다는 말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사용자는 "생각보다 가격 설정이 적절했다. 사찰에서의 햄버거라는 재미도 있고, 또 지역을 위해 환원된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서인지 금방 품절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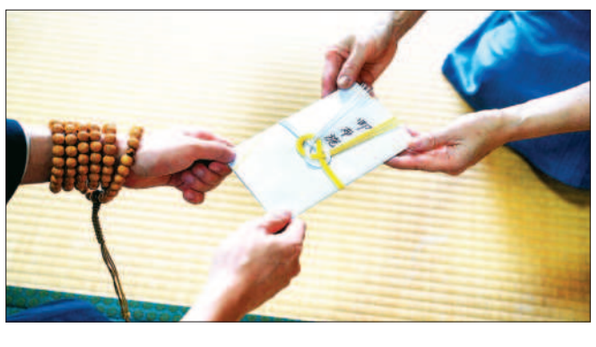
뉴스를 보고 타지역에서 방문했다는 네티즌은 "사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국수나 떡 같은 음식으로 자판기를 만들어도 재밌겠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日, 사찰과 신도 간 '보시금 문제' 논란

신도 "정확한 금액 알려주길"
금액 명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스님 "보시 개념 바로잡아야"
현대 가치관 맞춘 개선 시급

사찰이나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양하는 보시금. 최근 일본에서는 이 보시금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다. 특히 시다림이나 49재와 같이 고액의 보시금이 오가는 법요에 대해서 사찰과 신도 간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2월 27일 이 보시금 문제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보시금 문제를 조사한 종교전문 저널리스트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과거 마을 공동체나 친인척만으로만 이루어졌던 사회에서는 보시금에 대해 '암묵적 동의'로 합의된 금액이 있었다"며 "그러나 인터넷 보급 등으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보시금에 대해 신도들이 "시세를 알 수 없다", "정확히 원하는 금액을 알려주길 바란다"며 사찰 측에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신도들이 바라는 것으로 "보시금액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신도가 사찰과 스님에게 공양하는 '보시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일본 불교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프레지던드 온라인**

이에 대하여 교계의 반응도 상반 되게 등장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스님은 "먼저 '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보시는 법요나 기도에 대한 대가성 물질이 아닌, 출가자와 재가자 간에 서로 기쁘게 주고받는 희사(喜捨)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이에 주장에 찬성하는 스님들은 "보시금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 자체가 불교의 교리적인 해석과 상충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스님들은 "출가자로서 보시라는 개념을 신도들에게 설명하고, 편할 대로 희사해 달라고 설명해도 '그래도 필요하신 금액을 말해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듣는 것이 대다수"라며 "현실적인 부분에서 금액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도들도 사찰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보시금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응답자는 "사찰의 경영상황을 공개해 준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정선을 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사찰에 보시를 하지 않는 만큼, 한 번에 보시한다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했다. 한 여성은 "부모님 장례와 천도재에 상당한 고액의 보시금을 희사했다. 대략 대졸자의 초임 2개월분의 금액이었다. 정성껏 재를 올려준 스님껜 감사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도저히 지불하라고 말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우카이 스님은 보시금 문제에 대해서 "일본 불교 특유의 사후 고인에게 붙는 계명(戒名)도 문제점이 많다"며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고인에게 계명을 수여하고 이를 영가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생전의 업적이나 영향력에 따라 달리하는 계명이 언제부턴가 영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계명의 급에 따라 보시금 액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은 "사찰과 신도 간의 전통적인 유대와 풍습을 지키면서도,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맞춘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론 장차 불교가 지켜온 위안과 평화라는 가치가 현대에 필요 없어 질 수도 있다"며 걱정을 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비폭력만이 유일한 길"

2월 28일, 전쟁 발발 5일 성명
"21세기 대화의 세기로 나가야"


달라이 라마는 "갈등과 불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과 불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이뤄집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2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채널 '달라이라마 닷컴'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로 인해 매우 큰 슬픔에 잠겼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한 성명문을 내놨다. 이 성명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차에 나온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문에서 "전쟁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비폭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인간들을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으로 생각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 인간 세계는 너무나 상호 의존적이어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 20세기는 전쟁과 유혈 사태의 반복이었다. 21세기는 대화의 세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쟁 발발 이후 연일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경을 빠져나가 타국 난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월 2일 기준 68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유럽으로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크라이나 위한 종교 초월한 기도

매체 '부디스트도어' 사설 통해
한 달간 철야기도 한 불자 소개
"종교가 중간자 역할 해야" 강조


성 미카엘 황금 돔 대성당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도들의 모습. 출처=부디스트도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3월 2일 홈페이지에 '불교도의 시각: 종교를 초월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매우 끔찍하고 비현실적이다"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불교도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해당 매체는 먼저 키예프 중심부에 위치한 기독교의 랜드마크 앞에서 전쟁 발발 약 한 달 전부터 이미 평화 기원철야 기도를 올린 불교도들을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전쟁 속에서 1108년경 설립된 성 미카엘 황금 돔 대성당(St. Michael's Golden-Domed Monastery) 앞에서 기도하는 불교도들의 모습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평화 철야 기도를 집전한 승단의 준세이 테레사와(Unsei Terasawa) 스님은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내 불교도들과 함께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대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직자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는 탈냉전 시대의 붕괴, 우크라이나의 파괴,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가혹한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번 전쟁은 특히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간 에큐메니즘(ecumenism:그리스도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신 및 그 사상)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종교인들은 '중간자'로서 어떻게 협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견을 어떻게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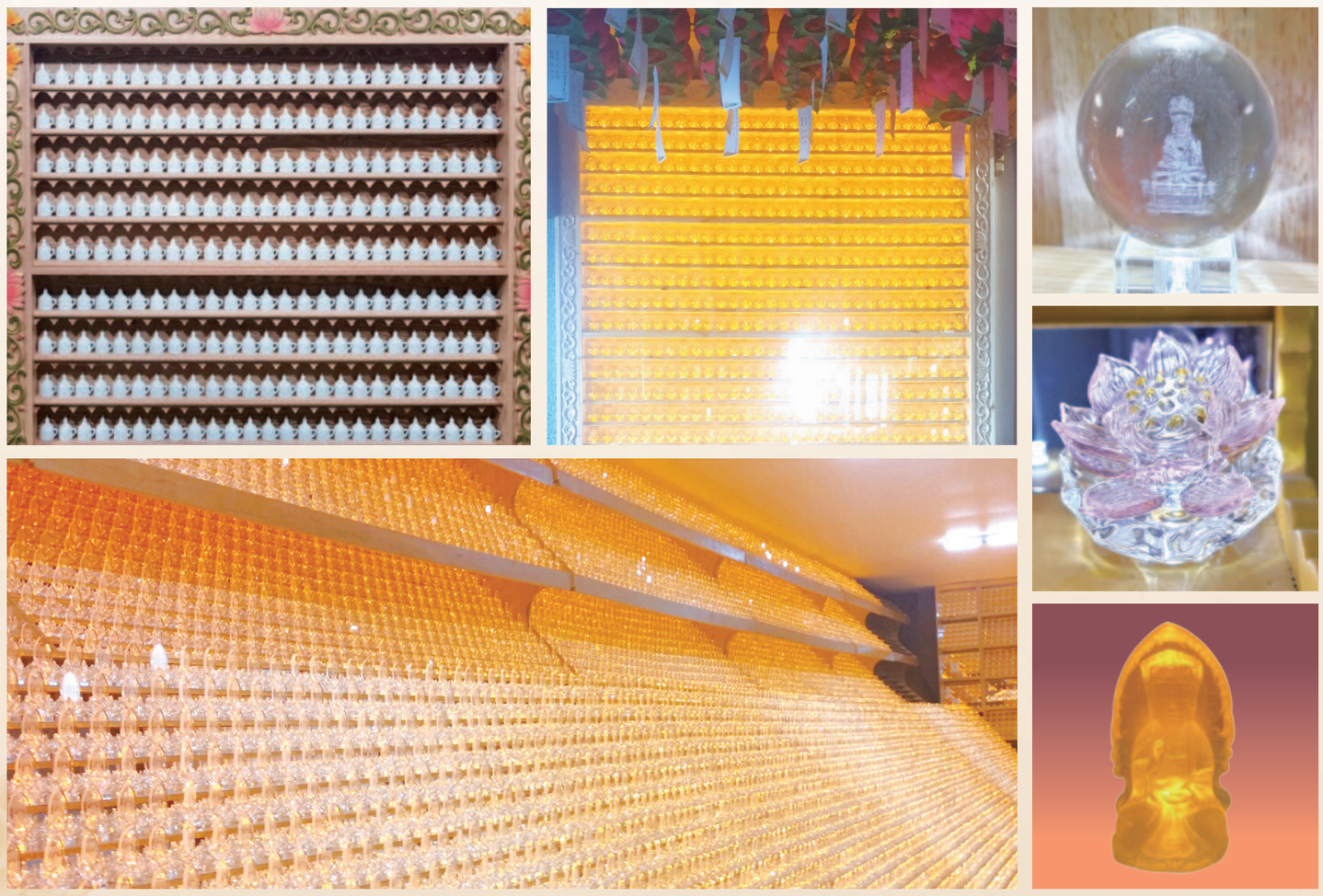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3/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김성철/개정본)바코드변경판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법륜스님의 금강경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7	숨길따라 가는 길(암도스님)	여산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순간이 내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9	황벽산의 메아리(깨달음의 외길 조사선3)전심법요완릉록 강설	원오 역해	무량수
5	49재와 136지옥:죽은 뒤의 중음세계와 지옥순례	허암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편 수록 *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쉬운 언어로 다시 읽는 '성철선' 핵심 해설



정독 선문정로

강경구 지음/벽해 원택 감수

장경각 펴냄/4만2천원





저자인 강경구 교수

선문정로 19장 체제를 그대로
각 장마다 맥락과 특징을 짚어
한문투 번역문 이해 쉽게 풀어



감수한 원택 스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해인총림 방장 성철 큰스님께서는 1981년 1월에 대한불교조계종 6대 종정에 추대되셨다. 그리고 그 해 12월 1일에 〈선문정로(禪門正路)〉를, 그 다음해인 1982년 7월에는 '본지풍광(本地風光)'이 〈산이 물 위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성철 큰스님께서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했다"며 흔연해 하신 책들이다. '밥값'이란 단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특히 〈선문정로〉는 화두 참구 수행자들에게는 교과서 역할을 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내용 자체가 난해한데다, 한문투가 많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다가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돈오돈수(頓悟頓修:깨달음 이후에는 수행이 필요 없음)'를 강조하는데 이는 보조국사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은 지속돼야한다)' 사상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문정로〉 내용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천조이자 송광사 16국사 문중의 초조인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를 비판하면서, 선종의 정통은 '돈오돈수'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어 전통적인 한국 불교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형국이 되었다. 750여 년 동안 한국 선불교의 전통으로 추앙받은 보조국사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져 보조 국사를 숭모하는 이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었다.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종문(宗門)은 물론 불교학계에서는 〈선문정로〉서 제기한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며 보조국사의 사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종정이 되어 보조국사를 힐난한다고 큰스님을 비난하고 나서니, 상좌인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라고.

이런 일진광풍의 논란속에서 그 중심에 있던 〈선문정로〉도 세인의 관심에서 차츰 밀려났다.

세월이 흘러 올해로 출간 41주년을 맞은 〈선문정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동의대 중국어학과 강경구 교수가 성철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을 안내한 〈정독(精讀) 선문정로〉를 펴냈다.

저자는 선문정로 19장 체제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각 장마다 맥락과 특징을 짚고, 인용문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또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투의 번역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다. 사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는 한국의 수행풍토가 선문의 바른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반성에서 시발된 일종의 법문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간화선 선사였던 성철 스님은 '순수한' 간화선의 수행 전통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책을 집필한 것이다. 저자인 강경구 교수는 이 책의 해설서를 쓰기로 마음먹고, '성철스님 따라하기'와 '성철스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천하였다. 〈선문정로〉의 한 문장에서, 쉼표 하나와 마침표 하나에서, 혹은 저 넓디넓은 행간 속에서 스스로 성철 스님과 동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되돌아보며 '왜?' '어째서?' '이 뭣고?'와 같은 시공을 끊어낸 질문과 긴 씨름을 했다. 그 결과 '돈오원각론(頓悟圓覺論)' '실참실오론(實參實悟論)' '구경무심론(究竟無心論)'으로 '성철선'의 3대 종지를 정립하고, 마침내 10여 년에 걸친 〈선문정로〉 읽기를 마무리한 결과물로 이번에 〈정독 선문정로〉를 펴내게 된 것이다. 〈선문정로〉의 특징은 '인용문 분석'으로, 성철 스님의 인용문은 별색으로, 글자의 생략과 바뀜, 대체 등은 대괄호 [ ]와 동그라미 숫자를 이용해 검정색으로 구분 표시한 것이다. 이어서 〈선문정로〉 번역문과 저자의 현대어역을 실었다.

저자의 현대어역은 한문에 능수능란했던 성철 스님의 한문투의 번역문을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했다. 또한 글자의 생략이나 바뀜 등은 [ ]를 이용하되 문맥과 뜻이 통하도록 했다.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해설]에서는 인용문의 출전을 밝히고, 성철스님께서 간절하게 돈오돈수를 주장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인용문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여, 성철 스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폈다.

저자인 강경구 교수는 책머리말에서 "알고 이해하는 일 자체가 깨달음의 장애가 됨을 알면서도 다시 그 앎과 이해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적 담론의 운명"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성철선에 대해 말하기를 실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실상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운명적 간극을 거듭 확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실로 알고자 하는 간절함의 순도가 높아지므로 이 책이 성철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성철선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이 책이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찾거나 나의 수행을 점검하고 싶은 분들이 정독 하시길 권해드린다"며 "성철 스님이 남긴 유산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이 시대에 메시지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공부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니 우리가 참선 수행하면서 위기나 게으름에 빠지거나 자기 관점서 왜곡이 일어날 때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 됐고 또 그렇게 확인된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감수를 맡은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도 추천사를 통해 "단순히 학자적 호기심과 연구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작업이다. 오로지 성철 스님을 믿고 따라가 보자는 굳건한 신심과 저자 자신의 실경계 체험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글이었다"며 "성철 스님에 대한 비판이나 긍정 등의 발언은 뒤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용문을 점검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선문과 수행자의 입장에서 짚어나가는 성실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고 격려했다.

▲저자 **강경구 교수**는?

동의대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대한중국학회 회장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부산불교방송에서 '서유기와 불교'를 주제로 라디오 강연을 했으며, 국제신문 종교칼럼(불교)을 집필했다. 저서로는 〈두 선사와 함께 읽은 신심명〉 〈평설 육조단경〉 외 23권이 있고, 논문으로는 〈서유기 화과산의 불교적 독해〉 〈선문정로 문장 인용의 특징에 관한 고찰(1,2,3,4)〉 등 70여 편이 있다.

▲감수 **원택 스님**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1월 15일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백련암을 떠나지 않고 22년 동안 큰스님을 시봉하였고, 성철스님 열반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철스님기념사업과 불교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받았다. 현재 해인사 백련암, 산청 겁외사, 부산 고심정사 회주이며, 저서로는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성철스님 임제록 평석〉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성철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이 옛 불조들과 다르지 않음을 확신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문장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현대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의 왜곡에 속하지만 옛 한자문화권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다. (중략) 흔히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핵심이 창작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술(述)'은 옛 사람의 말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심화된 재해석과 새로운 관점의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성철스님의 문헌 인용은 그런 점에서 술이부작의 전통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제 8장 오매일여〉中에서

"성철스님은 교와 선, 해오와 증오, 돈오와 점수와 같은 모순된 둘을 함께 인정하는 통합론을 거부한다. 그 대신 간화선이라는 용광로에 불교의 모든 수증론을 녹여내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수증론을 논의의 장에 올리되 그 논의의 끝은 항상 활구참구의 실참을 통한 실오로서의 견성, 즉 구경원각에 대한 강조가 되는 것이다. 실참실오를 주장하는 성철선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15장 다문지해〉中에서

"〈선문정로〉는 그 설법이 부정과 비판과 배격의 언어로 진행되다 보니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의 방식으로 전개된 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보조스님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강력한 부정과 비판과 배격은 예외 없이 수행자의 내면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장애를 향한 것이다. 〈선문정로〉에 정통성의 측면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는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핵심은 선수행의 실천을 인도하는 안내서로써의 역할을 지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실천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연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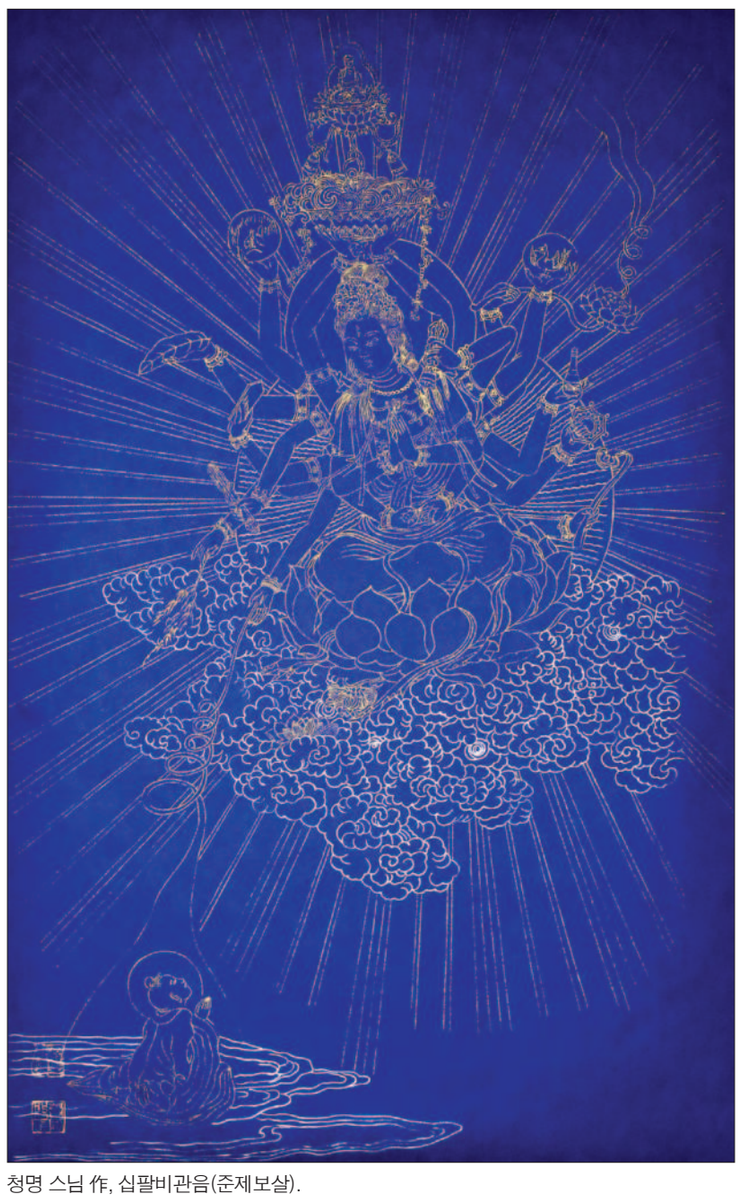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보일 듯 말 듯 철선 寫佛에 담긴 밀교

청명 스님 사불과 사경 展
'금선불향, 금빛 선으로 부처님네 향기를 올립니다'
소소갤러리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청명 스님

다라니, 십팔비관음 등 20여 점 선봬
선정의 호흡으로 그려내는 철선사불
10여 년 전부터 사불과 수행을 시작


청명 스님 作, 십팔비관음(준제보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행법으로 수행정진하며 밀교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청명 스님이 수행의 방편으로 그려온 사경(寫經)과 사불(寫佛)을 모아 개인전을 연다.

청명 스님은 3월 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중앙동 소소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금선불향, 금빛 선으로 부처님네 향기를 올립니다'를 개최한다.

바즈라명상센터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서 청명 스님은 '다리니', '십팔비관음' 등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작품은 철선사불(鐵線寫佛)이다. '철선사불'은 선정의 호흡이 아니면 그릴 수 없는 작품이다. 철사처럼 선 자체가 가늘다고 해서 '철선(鐵線)'이라고 하는데, '철선'은 선묘의 두께가 일정하고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그렸다고 하기엔 그 정교함이 극히 세밀하고 가늘어서 마치 투명하게 보일 정도이다. 철선은 고려시대 최고의 불화로 불리는 수월관음을 그릴 때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수월관음이 입고 있는 비단 사라(紗羅)가 투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수행으로 마음이 깊어져 호흡이 미세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사비관음(四臂觀音)'은 철선으로 표현해 빛으로 비춰야만 형상을 미묘하게 드러낸다. 사비관음은 네 개의 팔을 가진 관음보살이며 티베트에서 볼 수 있는 불화이다.

청명 스님은 사비관음을 그리는 동안 시력을 잃을 뻔 했다. 스님은 "사비관음을 완성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단 한 가닥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며 "그렇게 작품에 몰입하면서 생긴 심각한 안압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위기까지 경험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를 잘 관찰해서 오롯이 집중하되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는 것도 큰 공부임을 때달았다"고 전했다.

이외 스님의 작품은 한국 사찰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신중탱화의 주존 예적금강(穢跡金剛)을 단독으로 표현한 작품, 준제보살로 호칭되는 '십팔비관음(十八臂觀音)'도 만날 수 있다. 또 전시에서 백의관세음보살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함께 새긴 작품과 다라니의 제목을 한문으로 적고 내용을 산스크리트어로 새긴 사경·사불 합작품도 선보였다. 관세음보살 사십이수 진언을 비롯해 티베트불교의 여덟 가지 길상도 각각 선보인다.

청명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사불수행을 시작했다. 진언수행에 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일본, 중국, 티베트 사경 교본을 구해 산스크리트어 만트라(진언)를 따라 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다. 자연스럽게 사경에서 사불로 확장됐고 수행을 거듭할수록 집중력이 깊어지면서 밀교의 가르침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청명 스님은 "만트라를 보고 따라 쓰고 새기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밀교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 불교 속에 녹아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한국 불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밀교가 누구에게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개원 1주년을 맞는 바즈라명상센터는 청명 스님이 밀교의 대중 포교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30일 개원한 현대식 수행공간으로 건물 전체가 문화와 수행, 명상을 위한 공간이다. 바즈라(vajra)는 산스크리트어로 '금강'을 뜻한다. 명상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중에게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대승불교의 금강승(金剛乘)을 가르치는 밀교수행 공간이며 금강승 불교는 보리심과 보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에서 크게 꽃피운 불교이다.

바즈라명상센터에서는 스님이 지도하는 밀교 수행법을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위해 인스타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바즈라명상센터 2층에 위치한 소소갤러리에서 열린다. 건물 1층은 찻집이고 3층에는 바즈라명상센터가 있다.

청명 스님은 한국의 제방 선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행법을 접하며 스스로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찾아 정진해왔다. 미얀마 마하시선원, 중국 구화산에서도 정진했으며, 정토염불에도 매진했다. 그러던 중 홍콩 원융불학원과 인연이 닿아 일본 고야산에서 전통을 이어온 진언종의 밀교수행을 접했다. 고야산 홍콩 분원 묘종사에서 관제 아사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4년여 전부터 밀교 수행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사단법인 미소원과 오랜 인연으로 현재 미소원 청년회 지도법사도 맡고 있다. 스님은 국민예술협회 사경부문 초대 작가로도 등재돼 있다.

어장 동희 스님 범패 음반 발매



범음 13장 등 총 18장 CD로 출시
범음13, 화청2, 작법2, 대령·관욕1
범패음악 집대성 음반 수록은 처음
송암 문하서 65년간 범음범패 계승
종교적·음악적으로 모두 가치 있어

어장(魚丈) 동희 스님<사진>이 불교 고유의 성악곡, 범패를 18장의 CD에 담아 출시했다. 분야는 범음 13장, 화청 2장, 작법 2장, 대령·관욕 1장으로 구성했다.

9세기 무렵 신라시대부터 전해오기 시작한 범패는 불교의식을 보다 장엄하게 하고, 심신을 심화시켜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음악이다.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로 이루어진 범패는 서양의 그레고리안 찬트와 같은 성격의 의식음악으로, 특히 범패 중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종교음악의 가치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민속음악이기도 하다.

범패의 세계는 무척 넓지만 이번 음반 작업에서는 대중들과 나누어야 할 곡들을 추려 '범음' 13장 음반에 담았으며, 불교 무용 세계에 꼭 필요한 곡들은 '작법' 음반에, 불경 속의 교훈적 이야기를 담은 곡들은 '화청' 음반에 각각 수록했다. 그리고 스님들의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곡들은 '대령·관욕'으로 따로 담았다.

가곡·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꼽히는 범패 음악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음반에 수록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종교적으로는 물론 음악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희 스님의 범패음악 CD

동희 스님은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 한국전쟁 중이던 여섯 살 때 서울 청량사에서 조계종 비구니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3세 때 범패로 명성이 높았던 어장(漁丈) 송암 스님 문하에서 입문하여 범패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65년간 변함없이 범음범패를 계승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교육조교 및 조계종 염불종장'인 동희 스님은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범패승계보에 올랐으며, 불교 의식의 무대 공연화를 시도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30세에 옥천범음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동국대·서울대·한국예술종합학교·각 승가대학교와 국립국악원 등에서 범음과 범패를 가르쳐왔으며, 현재는 동희범음회의 대표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 등 국가의 주요 불교 행사를 집전하고 있으며, 1980년 '베를린음악제' 초청 영산재 공연 이후 로마 교황청 초청 공연, 뉴욕 사운드스페이스 공연, 워싱턴 케네디센터 공연, 도쿄 국립극장 공연 등 해외공연을 통해서도 소중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스님의 범패는 영혼을 다스리는 소리이며, 스님의 춤은 마음을 다스리는 몸짓'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문의 : A&A (02)583-4300, 청량사 (02)966-1505) 박재완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2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2. 3. 19.(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 **좌장** : 안성두(서울대)

□ 제1주제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발표 : 법장 스님(해인사승가대학)
논평 : 1. 이자랑(동국대) 2. 고승학(금강대)

□ 제2주제 (대행선의 사상적 체계와 그 의의)
발표 : 김재권(능인대학원대학)
논평 : 1. 이상호(서강대) 2. 이석환(동국대)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나말여초 고승 장수 비결 '절제 · 소식 · 노동'

이현숙 연구교수, '신라사학보' 발표 논문서

나말여초 고승 22명 비문 분석
평균수명 73세 법랍 55년 달해
"당시의 어느 누구보다 장수해"
불교 경전 통해 의학지식 습득
절식하며 수행 · 노동 등도 요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감혜소 선사의 성품은 질박함을 흩트리지 않았고, 말에 꾸밈이 없었다. 도토리와 콩을 섞은 범벅에 나물 반찬도 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귀인이 가끔 찾아와도 일찍이 다른 반찬이 없었다."

"낭혜무염은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낮춰 먹는 것을 남과 다르게 하지 않았고, 입는 것은 늘 같은 옷이었다. 건물을 짓고 수리할 때는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했다."

이는 신라 하대 고승 진감혜소 선사와 낭혜무염 선사의 비문 중 일부다. 모두 소탈했던 두 고승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두 고승의 공통점이 또있다. 바로 '장수' 했다는 점이다. 진감 선사는 77세로 입적했고, 낭혜 선사는 88세로 원적했다. 질병과 환란이 끝이지 않았던 당시에 두 고승의 세납은 장수를 넘어 천수를 누렸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고승들이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이현숙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신라사학보 제53집에 발표한 연구논문 '나말여초 고승들의 질병과 죽음'에서 나말여초 시기 22명의 고승 비문을 분석해 그들의 삶과 죽음을 의학사적으로 조명했다.

이 연구교수에 따르면 나말여초의 고승들은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장수집단' 이었다. 22명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3.5세이며, 승려로 활동한 기간인 법랍의 평균은 55.5년이었다. 고려 비문 전문가인 김용선 한림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귀족들의 평균 수명은 39.7세이며, 고려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2세이다. 이를 감안하면 몇몇 고승들이 상대적으로 일찍 입적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국보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의 비문. 낭혜 선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88세로 원적한 낭혜 선사는 질박한 음식을 먹고, 노동을 하며 살았다.

그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했음에 주목했다. 우소병(피부병 일종), 전염병, 정신질환 등 계율로 정한 질병을 가진 자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었기에 승려가 되지 못했다. 이 연구교수는 "계율로 정한 질병들을 가진 자들은 단체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가진 것"이라며 "나말여초에도 이 같은 계율이 대체적으로 지켜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점도 장수의 요인 중 하나였다. 〈십송율〉 〈사분율〉 〈마하승기율〉 등에는 목욕과 양치, 손 닦는 법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에서도 강조되는 위생 수칙이다.

신라 대표 고승인 원효 스님도 의학적 지식이 상당히 해박했다. 원효 스님은 〈범망경보살계본사기〉를 저술하며 "술은 곡주(穀酒)와 약주(藥酒), 과주(果酒)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약주라는 것은 독활 등 풀로 만든다. 이것이 진짜 술이 되는 경우"라고 기술했다. 독활은 중국 고대부터 풍한(風寒)으로 생긴 병이나 진통에 효과가 있으며 간질 발작 등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다.

낭혜무염 선사는 경문왕이 위독하자 부름을 받고 보령 성주사에서 경주로 와서 알현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신에서 "빨리 우리 대의왕(大醫王, 낭혜무염 지칭)을 모셔오라"고 명했으며, 낭혜무염은 왕의 곁에 머무르며 약언(藥言)과 잠계(箴戒)를 베풀었는데 이내 왕의 병이 나았다.

이 연구교수는 "당시 고승들은 불교 경전을 통해 질병 치유의 지식에 해박했고, 우울함이나 근심 등이 질병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고승들은 질병을 치유하는 대의왕(부처)와 같은 존재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혼란기 백성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설명했다.

질박한 음식을 섭식하며 수행하고 노동하는 것도 장수의 요인으로 이 연구교수는 꼽았다. 그는 "진감 선사는 평소 도토리와 콩을 버무린 것에 나물 반찬 한 가지만 먹었다. 대부분 고승들이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박한 음식을 상용했기에 장수할 수 있었다"며 "소식과 적당한 노동, 무엇보다 계율에 따른 규칙적 생활이 장수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신라불전 성립 의미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세계불교학硏, 19일 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 안에서 신라 불전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19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불교에서 신라 불전 성립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제2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효, 의상, 의적 등 신라 스님들의 저술 불전을 살피는 이날 학술대회는 △원효의 '금광명경소'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이인석, 한마음선원) △원효의 '승만경소'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의상의 '화엄경문답'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박서연.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의적의 '무량수경술기'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최동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현초의 '최승태자별단공양의궤'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강대현,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은 김영미 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교수, 이수미 덕성여대 철학과 교수, 박은희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김성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초빙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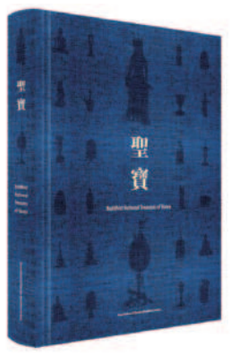
한국 대표 성보문화재, 한권으로 만난다

종단협, 한영 도록 '성보' 발간
국보 유산 망라… 시대별 정리

우리나라 국보 가운데 불교유산인 성보를 하나로 모아낸 한영판 도록이 발간됐다. 도록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한국불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 제작한 결과물로, 국내외 대사관과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돼 성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매개가 될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최근 한국불교 소개를 위한 외국어 시리즈의 일환으로 〈성보(聖寶)〉를 발간했다. 해당 시리즈는 종단협이 2008년부터 한국불교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매년 기획해 제작 · 발간한 단행본 형태의 책자다. 한국불교 개괄은 물론, 수행문화와 불교문화재, 선사의 가르침, 사찰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불교 문화를 알려왔으며, 이번에 발간된 〈성보〉는 15번째 단행본이다.

〈성보〉는 K문화의 근간인 한국문화유산 가운데 불교유산인 성보, 그중에서도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만을 추려, 화보와 역사를 함께 담아냈다.



종단협은 "삼국 시대 불교 전래를 시작으로 문화의 황금기, 국가 누란의 시기에도 왕실을 비롯한 백성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불법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사찰을 건립하고 석탑을 세웠으며, 법당에 부처님과 불화를 봉안하고 경전을 간행했다"며 "이러한 염원이 모여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자긍심인 불가의 성보가 탄생했고 이렇게 탄생한 성보문화재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기준) 중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보 중 성보문화재만을 엮어낸 도록은 현재 〈성보〉가 유일하다. 이를 위해 종단협은 각 협조기관에 사진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고 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찰을 직접 방문하거나 박물관 특별전에서만 만나 볼 수 있었던 각 시대의 문화예술 최고 경지인 '국보 문화재'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도록은 영문과 국문을 함께 실어 내국인과 외국인 독자가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 시대별 국보의 주요한 특징은 물론, 역사의 흐름 속 불교미술의 변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국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상호 미술사학자가 원고를 맡고 주수완 우석대 교수가 감수했다. 번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강혜원 문화유산 영문해설문 편찬 연구팀 팀장과 트와이닝 린지(Lyndsey Twining), 번역감수는 홍희연 불교전문 통 · 번역가가 맡았다.

〈성보〉는 2000부 가량 제작됐으며, 국내외 대사관, 해외 문화원, 해외 사찰, 국내 사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종단협은 "선조들이 만들어낸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려운 시도였던만큼 성보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느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만해 스님 휘호 '전대법륜' 우리 품으로

스타벅스, 3.1절 맞아 문화유산신탁에 기증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3.1절 103주년을 기념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친필 휘호인 '전대법륜(轉大法輪)' 유물을 기증하며 관련 전달식을 가졌다.

덕수궁 중명전에서 진행된 이번 유물 전달식에는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이동국 예술의전당 수석큐레이터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에 맞춰 안전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전대법륜'은 만해 한용운 선사가 말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친필 휘호로, '거대한 진리의 세계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대법륜' 친필 휘호는 스타벅스가 지난해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을 통해 구입돼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역사적 의미의 독립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 기증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스타벅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대한민국 문화재의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3.1절을 기념해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친필 휘호인 '전대법륜(轉大法輪)' 유물을 기증했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불교학연구회, 선가귀감 무료 온라인 강좌 진행

4~6월 동안 …선착순 100명

선불교 지침서인 〈선가귀감〉을 통독할 수 있는 무료 강좌가 온라인에서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불교한문고전 시민강좌'를 줌-온라인를 통해 무료로 개최한다.

교재는 서산 휴정의 〈선가귀감〉이다. 강사는 〈한국 전통사상총서- 정선 휴정〉을 번역한 김영욱 선생이 맡았으며, 강의는 원문을 통독하고 역주 자료를 선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 신청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F31MB9mX)에서 접수하며, 선착순 100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불교학연구회는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이번 시민강좌를 열게 됐다"면서 "관심 있는 불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6



▶ 57회 예고

빈두사라왕을 알현한 아쇼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강가강에 나가 빈두사라왕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순행 중이던 수상 칼라따까가 급히 돌아와 아들 꾸날라가 탁실라에 볼모로 가 있음을 알리자, 아쇼까는 분노한다.

아쇼까, 빈두사라왕 알현하다

빠딸리뿌뜨라에 도착한 아쇼까는 바로 왕궁으로 갔다. 빈두사라왕을 알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을 만나지 못했다. 빈두사라왕의 병이 위중해 우두머리 궁중의원과 친위대 군사가 면담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옛 꾸루국과 앙가국을 순행 중이었다.

빈두사라왕의 안위(安危)는 1급 비밀이었다. 대왕의 안위를 발설하면 비밀누설죄로 극형에 처해졌다. 왕권을 수호하고 적국에 불리한 첩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쇼까는 접견실에서 한나절을 기다렸다. 친위대장이 다가왔지만 그는 빈두사라왕의 근황을 들려줄 뿐 건강 문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차라리 내일 알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대왕님께 지금 인사를 드리고 싶소. 다르마 왕비님을 먼저 뵐 수야 없지 않겠소?"

"대왕님께서는 오랜 정복전쟁으로 심신이 지쳐 쉬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친위대장은 끝내 빈두사라왕이 위중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빈두사라왕에게 수시마를 지키라고 명을 받은 심복이었다. 아쇼까는 친위대장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이윽고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아쇼까에게 다가와 말했다.

"부왕님, 대왕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대왕님은 어디에 계시오?"

"대왕님께서는 침전에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침전으로 모셨습니다."

"말씀은 하시오?"

"응급치료를 받으시어 지금은 가능하십니다."

아쇼까는 우두머리 궁중의원을 따라서 왕의 침전으로 갔다. 침전은 정궁 뒤쪽 후원 속에 자리했다. 친위대장이 침전 앞에 보초를 선 친위대 경계군사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아쇼까가 왔습니다."

"아쇼까..."

빈두사라왕이 침대에 누운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빈두사라왕의 두 눈동자에 기름불 불빛이 비쳤는데 그의 눈동자는 힘을 잃고 반쯤 풀어져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아쇼까를 알아본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대왕님, 궁중의원이 곁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쇼까야, 나는 나를 안다."

옆에 있던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당황했다. 빈두사라왕의 "나는 나를 안다."라는 말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쇼까를 만나서 정신이 돌아왔는지 빈두사라왕의 목소리는 웅얼거리지 않고 입 밖으로 나왔다.

"너는 수시마 형을 도와야 한다."

"예, 대왕님."

"수시마를 부르거라."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말했다.

"대왕님, 수시마 부왕님은 지금 탁실라에 계십니다."

"그래?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구나."

빈두사라왕은 수시마가 아직도 빠딸리뿌뜨라에 있는 줄 알고 있는 듯했다. 특별휴가를 받아 작년 초에 왔던 수시마는 현재 탁실라로 돌아가서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친위대장을 찾았다.

"대장은 어디 있느냐?"

"침전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부르거라."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나간 사이에 아쇼까가 말했다.

"아버님, 자리에서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는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제는 내 차례가 된 것 같다."

"아버님."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고개를 쳐들어 천정을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기름불이 흐리게 보였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친위대장이 침실로 들어왔다.

"대왕님이시여, 친위대장입니다."

"수시마를 부르거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빈두사라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 무언가 말을 할 듯 입술을 움직이려다가 말았다. 깊은 숨을 내쉬는 것으로 보아 비로소 안도하는 듯했다. 빈두사라왕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눈을 가만히 감자,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아쇼까와 친위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침실을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아쇼까와 친위대장이 침실을 나서는 사이에 궁중의원이 빈두사라왕의 머리맡에 있는 기름불을 켰다. 왕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침전 밖에서 친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 지금 즉시 탁실라로 친위대 조장을 보내겠습니다."

"대장은 상황이 위중하니 여기 계셔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부왕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방금 대왕님의 명을 들은 사람은 부왕님과 저, 궁중의원뿐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왕궁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소."

아쇼까는 기분이 묘했다. 친위대장이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의심이 솟구쳤다. 왕궁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수시마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헷갈렸다. 그러나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쇼까는 받아들였다. 왕의 안위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왕궁은 순식간에 혼란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었다.

아쇼까는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가면서 장탄식을 했다.



"아, 인드라신이시여. 무심하십니다. 특별휴가를 받아 온 날 무슨 날벼락입니까? 마우리아왕국은 이제 어찌하여야 합니까?"

별이 뜬 밤하늘도, 내성 너머 시바신이 산다는 강가강도 무심했다. 강가강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지 불빛 몇 개가 명멸했다. 아쇼까는 강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가서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혔다. 어머니 다르마와 아내 아상디밋따를 십여 년 만에 만나는데 심란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들 꾸날라도 기쁜 마음으로 안아보고 싶고, 동생 비가따쇼까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가 아쇼까에게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아쇼까는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낯익고 정겨운 목소리였다. 시녀 락슈미띳사였다.

"부왕님, 락슈미띳사입니다."

"내가 여기 온 줄 어떻게 알았는가?"

"며칠 전부터 별궁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부왕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왕님을 먼저 뵀지."

"왕비님께서 밤길이 어두우니 마중을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아쇼까는 락슈미띳사의 한 마디에 주술에 걸린 듯 좀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시 잊어버렸다. 십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머니 다르마 왕비님은 늙지는 않으셨을까, 주름살이 생기고 흰 머리가 나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는 여전히 마음이 곱고 말투가 자애로울까. 아, 아들 꾸날라는 열두 살, 동생 비가따쇼까는 열 살이 되었겠군.

"모두 잘 있겠지?"

"왕비님은 부왕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약을 끊으셨어요. 건강이 단박에 좋아지신 거죠."

"기쁜 소식이군."

"아상디밋따 부왕비님도 가끔 콧노래를 부르세요."

"락슈미띳사가 우리 가족의 기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군."

"꾸날라는?"

"잘, 계시죠. 꾸날라 왕세자님은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 같죠."

락슈미띳사는 꾸날라가 탁실라에 가 있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아쇼까가 실망할까 봐서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했다.

아쇼까는 왕비별궁에 다다라서야 동생 비가따쇼까를 들먹였다.

"비가따쇼까는 승마를 배울 나이겠군."

"대왕님께서 왕자님을 아주 사랑하신답니다."

별궁 접견실 문 밖에는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 부왕비, 비가따쇼까 동생이 서 있었다. 모두가 환한 얼굴로 아쇼까를 맞았다. 아쇼까는 다르마 왕비에게 먼저 다가가 안았다. 그리고 아상디밋따, 비가따쇼까의 볼에 입맞춤했다. 접견실은 여기저기에 기름불을 켜놓아 왕의 침실과 달리 대낮처럼 밝았다. 대형화분에는 붉고 하얀 부겐빌리아 꽃들이 만발했고, 화병에는 막 피어난 연꽃이 진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다르마 왕비가 말했다.

"아쇼까여, 우리는 네가 오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했단다."

"어머니, 저는 여기에 1년쯤 있을 겁니다."

아상디밋따가 말했다.

"시바신께서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날마다 강가강으로 나가시어 기도했어요."

"아니다. 네 동생 비가따쇼까가 대왕님께 부탁한 것이지."

비가따쇼까가 화병의 연꽃처럼 활짝 웃었다. 고른 치아가 하얗게 빛났다. 열 살이면 승마와 검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아쇼까는 비가따쇼까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수시마 형과 코끼리경주대회에 나가서 1등을 양보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비가따쇼까가 칼 한 자루를 아쇼까에게 내밀었다.

"형님, 대왕님께서 저에게 주신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형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오시는데 무슨 선물을 할지 이 칼을 보면서 몇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오, 비가따쇼까야. 그건 안 된다."

"대왕님께서 저에게 주신 칼이니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수시마에게도 한 자루 주었던 바로 그 칼이었다. 길이가 짧은 칼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칼'이라는 명문이 마케도니아어로 음각되어 있었다. 다르마 왕비가 말했다.

"동생이 얼마나 너를 기다렸으면 이 칼을 선물하겠니? 흔쾌하게 받아라."

칼을 보면서 선물할지 말아야할지 몇날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하니 비가따쇼까의 설레는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아쇼까는 비가따쇼까가 내민 칼을 받았다. 아쇼까는 가족들에게 자정 무렵까지 웃자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처럼 왕비별궁 접견실에서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에 아쇼까는 문득 꾸날라가 생각이 나서 물었다.

"꾸날라는 어딨소?"

아상디밋따가 대답을 못하자 다르마 왕비가 말했다.

"대왕님께서 수시마 형을 도우라고 탁실라로 보냈단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쇼까는 열두 살의 꾸날라가 수시마를 위해 무엇을 돕는다는 것인지 의아해했다. 자신이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동안 아들 꾸날라가 왜 탁실라로 가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이유를 아쇼까에게 말하지 못했다.

아쇼까는 잠자리로 돌아와 밤새 뒤척거렸다. 꼭두새벽에 흐느끼고 있는 아상디밋따를 껴안았다. 그러나 아쇼까는 꾸날라 생각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탁실라에 가 있는 꾸날라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❺ 여산 혜원(廬山 慧遠)

▶ 한줄 요약
남방불교에서 정교분립을 실현시키고, 중국불교학에 있어서 초기 불성론인 법성론의 제창과 최초로 정토결사를 결성해 정토종 종조의 역할을 수행한 여산 혜원.



법성론 제창과 최초 정토결사 결성

유교를 바탕으로 한 보수 세력이 쿠데타로 조위(曹魏)를 멸하고, 손오(孫吳)와 유촉(劉蜀)을 정벌하여 다시 중국을 통일했지만, 황권의 권력싸움인 팔왕지란(八王之亂)이 발생하고, 그 후에 수십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50여 년의 짧은 역사로 멸하였고, 북방에는 다섯 소수민족[五胡: 匈奴·羯·鮮卑·氐·羌]이 세운 16국이 난립하였으며, 서진의 황실은 남하하여 지금의 남경(南京)인 건강(建康)을 수도로 하여 동진(東晋)을 세웠다. 이 시기를 '동진십육국'이라고 칭하는데, 남방의 동진이나 북방의 16국들은 모두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설정하면서 불교가 시대사조(時代思潮)를 담당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남방은 현학(玄學)과 결합한 불교가 유행했으며, 북방에는 중관반야학(中觀般若學)이 유행하게 된다. 그에 따라 남방불교의 특색을 '의리불학(義理佛學)', 북방불교를 '성공지학(性空之學)'으로 칭하며, 남방불교의 대표를 여산(廬山) 혜원(慧遠)으로, 북방불교의 대표를 구마라집(鳩摩羅什)으로 손꼽는다.

남방불교의 대표로서 혜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불교사상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혜원과 관련하여 언급할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을 간추려서 논하고자 한다.

혜원(334~416)은 중국인 최초의 고승으로 평가받는 도안(道安)의 제자이다. 혜원의 전기는 〈고승전〉 권6, 〈출삼장기집〉 권15 등 다양한 문헌에 게재되어 있으며, 그의 행적과 사상 등을 언급한 전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속성은 가(賈)씨이며, 안문(鴈門)의 누번(樓煩: 현 山西省 原平市) 출신이다. 13살에 낙양(洛陽)으로 가서 유생(儒生)으로 공부하면서 육경(六經)과 노장(老莊)에 뛰어났다고 한다. 21세에 태행(太行)의 황산(黃山)에 도안이 사찰을 건립하고 법을 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반야경〉의 강의를 듣고 "유가와 도가 등의 구류(九流)는 모두 겨나 쭉정이일 뿐이다"고 탄식하고, 동생[慧持]과 함께 도안을 스승으로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에 선수학(禪數學)으로부터 대승 〈반야경〉에 이르기까지 통람하였는데, 이는 스승인 도안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기록에 따르면, 혜원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문하에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도안은 "불도(佛道)가 동쪽의 나라(中國)에 유포됨은 혜원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 후 부견(符堅)이 양양(襄陽)을 침공하여 도안을 장안(長安)으로 모셔가자, 혜원은 대중을 이끌고 남하(南下)하여 심양(潯陽: 현 江西省 九江市)에 이르러 여산(廬山)의 용천정사(龍泉精舍)에 머물렀지만, 대중이 많아지자 그곳의 자사(刺史) 환이(桓伊)가 여산의 동쪽에 승방과 불전을 건립하여 머물게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동림사(東林寺)이다. 혜원은 이 동림사에서 호계(虎谿)를 경계로 사문(寺門)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도교의 육수정(陸修靜) 등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 호계를 넘어서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는 '호계삼소(虎溪三笑)'의 전설이 전해진다. 이와 같이 동

남방불교서 정교분립 토대실현
禪·律 관련 새 불전 도입 역경
윤회와 '무아' 공존의 모순 탐구
중국불교 최초결사(백련) 결성
초기불성론 '법성론' 제창 업적

림사에 30여 년간 주석한 이후, 의희(義熙) 12년(416) 83세로 입적하였다.

혜원의 업적은 상당히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남방불교에서 정교분립(政教分立)을 실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진의 황실이 비록 남하하여 동진을 건국했지만, 당시의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황권에서는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또한 승가에서도 세속적 영리를 위하여 야합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그 때문에 당시의 실권을 가진 환현(桓玄)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출가 사문이 국왕 등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불교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혜원은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5편을 찬술해 환현에게 보냈다. 환현은 이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사문은 능히 경전의 가르침을 진술할 수 있어야하고, 의리(義理)를 설법할 수 있거나, 혹은 금행(禁行: 戒行)을 가지런히 닦아 큰 교화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그만두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 오직 여산(廬山)만은 도덕이 있는 곳이니,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말라."(〈出三藏記集〉卷15)는 조



'호계삼소도' – 혜원은 동림사에서 30여 년간 머물며 호계를 경계로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어느 날, 찾아온 도연명과 육수정을 배웅하며 담소하다가 호계를 건너고 말았다. 다리를 건넜음을 깨닫고 함께 웃었다고 한다.

칙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부터 동림사를 포함한 여산은 일종의 정치적 '무풍지대'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왕조가 바뀌어도 지속되었다. 또한 이후의 남조(南朝)에서는 정권과 교권이 분립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북조(北朝)에서는 황제와 여래를 동일시하고, 나아가 '승관제도(僧官制度)'를 확립시키면서 불교를 황권 아래 제도적으로 복속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후의 중국 왕조는 모두 북방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철저하게 국가권력에 예속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이른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廢佛)이 모두 북방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이러한 정교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삼무일종'의 폐불에 있어서도 '여산'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혜원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당시 남방에 선(禪), 율(律) 등의 불전이 부족함을 느끼고 제자인 법정(法淨), 법령(法領) 등을 파견하여 새로운 경전을 200여 부를 구하고, 그를 번역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혜원에 의하여 번역된 목록을 보자면 계율과 선수학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그의 스승인 도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혜원은 불교에서는 '윤회(輪廻)'를 제시하면서 또한 '무아(無我)'설을 제창하니, 과연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였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지금도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이 부딪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윤회의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숙세에 지은 업의 과보를 현세에 받는다는 것이 '윤회'를 통한 '업인과보' 설인데, 만약 윤회의 '주체아(主體我)'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업설 자체에 상당한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좋은 과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쁜 과보라면, 예를 들어,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전생에 진 빚을 현세에 갚으라는 것과 같은 상당히 억울한 논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형태로든지 윤회의 주체를 설정한다면, 표면적인 논리로는 합당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영원히 '윤회'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논리는 석존(釋尊)께서 시설하신 '무아설'과 '업설'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혜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태원(太元) 16년(391)에 계빈(罽賓)의 사문 승가제바(僧伽提婆)가 심양에 이르자 혜원은 그를 청하여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과 〈삼법도론(三法度論)〉의 두 논서를 번역하게 하고, 그에 각각 서문을 찬술하였다. 혜원의 사상에 있어서 이 두 논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논서가 혜원이 윤회의 주체에 대한 해결로서 제시한 '법성론'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삼법도론〉은 독자계(犢子系) 현주부(賢胄部)에 속하는 논서로, 윤회의 주체로서 '승의아(勝義我)'를 주장하고 있다. 이로부터 혜원은 바로 이 '승의아'에 근거하여 〈명보응론(明報應論)〉, 〈삼보론(三報論)〉 등을 찬술하게 되고, 그 논술에서 '신불멸론(神不滅論)'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혜원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성론(法性論)'을 제창하게 된다. 이러한 법성론에 따라 혜원은 열반(涅槃)을 이른바 '명신절경(冥神絶境)'으로 설명하는데, 불멸하는 윤회의 주체인 '신(神)'이 외부의 경계(境界)를 끊고서 고요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이러한 견해는 도안의 본무종(本無宗)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현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논리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후 융안(隆安) 5년(401)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장안(長安)에 도착하자 혜원은 바로 서신을 보내어 '대승'의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구마라집은 그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한 답변을 보내고, 후인들이 그를 모아 정리하여 〈구마라집법사대의(鳩摩羅什法師大義)〉3권(大正藏45所收)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마라집이 장안에 도래한 시기(401)는 혜원의 68세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오류는 그의 문하에 있던 혜관(慧觀), 도생(道生) 등에 의하여 수정된다고 하겠다.

혜원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바로 정토의 결사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당시 동진의 상황은 이른바 누란지위(累卵之危)와 같았고, 북방에서는 소수민족들에 의하여 세워진 제국들에 의한 끊임없는 전란의 연속이었다. 그에 따라 혜원이 동림사에 주석하자 유유민(劉遺民), 주속지(周續之), 종병(宗炳) 등 당시 유명한 문인들이 은둔하고자 몰려들었고, 또한 산수시(山水詩)로 유명한 사령운(謝靈運)과 같은 이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혜원은 원흥(元興) 원년(402) 7월에 '연사(蓮社: 白蓮結社라고도 칭함)'를 결성하였는데, 위의 재가 거사들과 도생(道生), 혜예(慧叡), 서역으로부터 온 불태야사(佛馱耶舍) 등 모두 123명의 승속들이 참여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의 '결사'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백련결사는 원대(元代) 지대(至大) 원년(1308)에 황제의 명령으로 금지시켰지만, 우담 보도(優曇普度)가 〈여산련종보감(廬山蓮宗寶鑑)〉 10권을 찬술하여 황제에게 올려 황경(皇慶) 원년(1312)에 다시 재개되었고, 그 이후 수많은 왕조의 교체와 전란에도 단 한 차례의 중지됨이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산 혜원의 불법에 대한 이해에는 오류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스승인 도안과 같이 시대적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혜원이 행한 수많은 업적은 중국불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남방불교에서 정교분립을 실현시켰으며, 중국불교학에 있어서 초기 불성론인 법성론의 제창과 최초로 정토결사를 결성하여 정토종(淨土宗) 종조(宗祖)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❺ 붓다의 생애와 불화

▶ 한줄 요약
붓다의 생애는 불화로 제작됐고, 이를 불전도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팔상도로 알려졌다. 돈황 석굴에는 많은 설법도가 남아있는데 시기별로 도상 내 청중의 구성이 다르다.



붓다 설법 청중, 토착神서 보살로 변화

지난 회에는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즉, 전생을 그림으로 표현한 '녹왕본생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신 후를 소재로 하는 불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와 같은 붓다의 생애를 소재로 하는 불교미술은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경전은 붓다의 전생 즉, 본생담과 출생한 이후의 전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붓다의 생애를 묘사한 '불전도(佛傳圖)'는 우리나라에서는 '팔상도(八相圖)'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사찰의 팔상전(八相殿, 捌相殿)이나 영산전(靈山殿)에 많이 봉안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팔상도는 대개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다.

내용은 ①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동서남북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모습) ④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궁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설산에서 수행하는 모습) ⑥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중의 항복을 받는 모습) ⑦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는 모습) ⑧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모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돈황 벽화에 마야부인의 〈영몽수태(靈夢受胎)〉에서부터 붓다의 일생을 본생도처럼 연환화(連環畵, lianhuanhua) 형식으로 그린 것이 여러 점이 남아 있다. 이는 수대(隋代)부터 그려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불동 제102굴의 내용은 〈강생〉 〈태자학습〉 〈태자출가〉 〈태자삭발〉 〈산중고행〉 〈항마〉 〈니련선하 목욕〉 〈녹야원초전법륜〉 〈열반〉 등이다. 이 중에 〈설법〉 〈항마〉 〈열반〉의 3상(相)은 독립적으로 한 폭씩 그려진 것이 많으며, 인도 등지에서 많이 제작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기원전 1세기 파얼리 부도 난간에 새겨졌던 〈영몽수태도〉가 현재 켈커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방대한 붓다의 생애 전반에 관한 변상도를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싯달타 태자가 깨달은 후 즉, 붓다가 되신 후의 활동상을 묘사한 '설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위시대 설법도 특징은

돈황 막고굴 제249굴 설법도는 돈황 벽화 예술의 대표작 중 하나로 북벽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 그림은 서위(西魏)시대에 그려졌다. 제249굴 북벽의 중층 불설법도 남북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불의 중앙에는 약 1m 사방의 소형 불설법도가 그려져 있다. 이 북벽의 설법도는, 오존도 형식의 중존불입상으로 본존불의 좌우에는 각 2구의 보살이 있다.(그림①)

중앙에 위치한 입불(入佛)은 배형 광배를 지고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249굴 설법도 벽화. 서위 시대에 조성됐다.



그림②. 초당시대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제57굴 남벽의 설법도.

우견편단(右肩褊袒)의 가사를 입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치켜들고 왼손은 옷을 잡고 엄숙하게 서 있는 자세다. 양옆에는 각각 이신(二身)의 보살이 우견편단 가사를 두르고 있거나 치마를 반나체로 입고 있다. 보살의 옷자락과 천의 끝이 톱날문과 같이 되어, 이 복장은 북위 후기에서 서위 시대까지 이어진다. 육색은 담갈색으로 변색되었지만, 본래는 피부색이었다고 생각된다. 보살은 몸매가 날씬하고 지체가 유연하고 아주 온화·단정하며 여성스러워 보인다.

붓다의 상방에는 짐승 머리와 쌍봉(雙鳳)의 화개가 장식되어 있고, 옥패장식의 수술이 드리워져 있다. 화개의 양쪽에 떠있는 구름에는 네 명의 비천상이 날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한 쌍의 비천의 용모는 수려하고 늘씬하며, 큰 소매의 두루마기를 입고 소매를 휘둘러 다리를 구부리고 춤을 추는 자태가 경쾌하다. 그 아래 한 쌍의 비천은 상체는 반라(半裸)이고 어깨에 건(巾)을 걸치고 긴 치마를 입고 있으며, 연꽃봉오리를 손에 들거나 꽃잎을 뿌리는 모습을 하고 두 발은 뒤집힌 채 몸놀림이 분방하고 강건해 보인다.

불화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국(佛國)의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천룡팔부의 하나인 '건달바, 즉 비천일 것이다. 이 형상들

부처님 생애를 도상화한 '불전도'
돈황에 연환화 형식 벽화 조성돼
서위代 서왕모 등 神들 청중으로
수당 이르러 보살·제자로 채워져

은 날개가 돋아나 있지 않고 구름에 의지하지도 않은 채, 기다란 건(巾)을 휘날리면서 손을 들어 꽃을 뿌리거나 즐겁게 하늘 위를 노닐며 훨훨 날면서 춤을 추는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상상이 기탁되어 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보물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구도는 정토변상의 모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인물의 형상에 생동감 있으며, 옷과 장식 그리고 화개에는 중원과 서역의 두 가지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필법이 간결하고 색이 소박하며 장식성이 풍부하다.

한편, 서위 제249굴에는 민속 전통의 신화(神話)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천정 가운데 연꽃(蓮花)무늬가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 양쪽에 아수라와 마니주(摩尼珠)가 그려져 있고, 남북 양쪽으로는 동왕공(東王公)과 서왕모(西王母)가 용거(龍車)와 봉거(鳳車)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수레 위에 무거운 덮개가 높이 달려 있고 수레 뒤에서 깃발이 휘날리는데, 양쪽에서는 절양번(節揚幡)을 쥔 방사(方士)가 길을 열고, 뒤쪽에서는 사람 머리의 용의 몸(人首龍神)인 개명(開明)이라는 신수(神獸)가 뒤따른다. 주작(朱雀)·현무(玄武)·청룡(靑龍)·백호(白虎)가 각각의 벽에 배치되어 있다. 비렴(飛廉)이 날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뇌공(雷公)이 팔을 휘둘러서 연이어 북을 울리니 천둥 번개가 일어나며, 우사(雨師)가 안개를 뿜어내어 비를 내린다. 이런 종류의 제재가 출현한 것은 불교 사상과 도가의 신선 사상이 벽화에 서로 결합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초기의 불교 예술이 민속화된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개황(開皇) 5년의 제305굴에는 제249굴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동왕공과 서왕모가 다시 한 번 동굴의 천정에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도하는 방사는 승려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두 종류의 제재의 진일보한 융합을 의미한다. 이후로는 수대(隨代) 동굴의 감변(龕邊)에 이런 식의 제재가 많이 출현하게 되는데, 화면의 크기는 갈수록 작아지며, 동왕공·서왕모와 함께 출현했던 바람·비·우레의 신들은 당나라 초에 이르러 벽화에서 사라졌다.

당나라 설법도 무엇이 변했나

당대의 설법도는 등장인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화가는 인물의 각기 다른 개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제57굴의 남쪽 벽의 설법도를 보면, 화면 중앙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제보살, 제자 등의 형상이 15~16명에 달하며, 중앙에는 연화좌 위에 아미타불은 결가부좌로 앉아있다. 아미타불의 양측에는 제자와 젊은 제자가 각각 그려져 있는데 늙은 제자는 손에 정병을 들고 젊은 제자는 발우를 들고 양측에서 시봉하고 있는데, 이는 아난과 가섭의 모습이다. 다시 외측을 보면 두 명의 큰 보살상이 있는데 특히 왼쪽의 협시보살은 가장 아름답게 그려졌다. 그 보살은 머리에 불관을 쓰고 상체는 반라이며 긴 스카프를 두르고, 몸에는 영락을 걸치고 있다. 한 손에는 가벼운 지물을 받치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공양물을 들고 있다. 이 보살들은 아름다운 몸매로 몸은 약간 'S' 형 곡선이며 눈은 아래를 보고 있으면서 사색하는 모습이며 섬세한 피부에 고귀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그림②)

수·당 시대에는 불상화가 새롭게 발전하였는데, 바로 대형의 보살상이 많이 출현하였다. 가장 큰 보살상은 높이가 10m 이상에 달하고, 가장 긴 보살 행렬(行列)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심지어 석굴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정토(淨土) 사상이 유행했기 때문에 특히 관음보살이 불교도들에게 숭배되었다. 당나라 초기에는 고승(高僧) 법림(法琳)은 당 태종(太宗)에게 관음의 영이(靈異)함을 대대적으로 선양하였다. 또한 당 선종(宣宗)은 모든 사원들에 관음상을 그리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초성당(初盛唐) 이래로 대세지(大勢至)와 관세음(觀世音) 등의 형상을 동굴에 그리고 그들의 소조를 만드는 일이 유행하였다.

이 설법도는 직접 진흙 벽 위에 그린 것으로 십대보살과 두 명의 역사상이 나타나 이전 시대의 설법도와 다른 면을 보인다. 인물 조형은 정확하고 아름다우며 색채는 화려한데, 이는 당 전기 벽화예술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진흙 벽 위에 직접 벽화를 제작하는 것은 당 전기에 니타난 새로운 기술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322굴 남벽 설법도에서도 나타난다. 화면에는 제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보살이라는 점과 불(佛)의 머리에 높게 솟은 소라와 같은 나발(螺髮)이 보살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보살의 신체 조형은 제57굴 보살의 모습처럼 요염함이 더해져 'S' 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초당대 설법도의 불보살상의 인체비례는 북위(北魏)와 서위(西魏)시대에 비해 더욱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였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입회비 20만원), 무료특강 (2년코스)
개 강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 다루는 법(목탁·요령·북·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안성 봉운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일죽면 고은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매주 목요일 교육 시간표		
오 전		
9시	천도재	법원스님
10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 후		
1시	교양과목 : 태평소	대산스님
2시	북 타법	진효스님

※ 수업은 시간 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행사 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일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2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특별기고 한국, 불교문화의 나라

이규항 前 KBS아나운서는
서울 출생. 고려대 2학년 때 학년을 4학년으로 올려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규정에 어긋나 졸업하던 해 다시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야구, 씨름, 유도 전문 캐스터로 활동하며 35년 동안 KBS 아나운서로 봉직했다. 퇴직 후에는 일본 프로 야구의 주니치로 이적한 선동렬, 이종범, 이상훈 선수의 활약상을 중계했다. 저서로 〈부처님의 밥맛〉 〈0의 행복〉 〈한국어 발음사전〉 등이 있다.



그림 · 박구원

한국문화 속 숨겨진 '불교 CODE'

한국문화의 70%는 불교문화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쌀'의 어원은 고려시대의 'ᄇᆞᆯ(菩薩)'이 음운변화하여 'ᄇᆞᆯ→ᄲᆞᆯ→쌀'이 되었는데 햅쌀과 햇과일의 종성(終聲)에서 'ㅂ'과 'ㅅ'이 남아 어원을 방증한다.

쌀로 빚은 술 종류인 정종(正宗)은 '올바른 불법'이라는 뜻이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핸드폰의 010(공일공)과 수학의 0.1(영점일)에서 기호일 때는 '공', 수학에서는 '영'으로 구분해 읽는다. 수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을 설명하는 언어이듯이 붓다의 공(空)사상은 학문과 생활을 증명하는 다양한 예로 틈입해있다.

空사상과 '0'의 발견

BC 6세기 붓다께서 깨달으신 공(空)사상이 만물의 실상이라는 사실은 인도사회의 상식이 되었고 AD 6세기 인도의 수학자들은 철학의 공(空)사상을 수학 세계에 투사(投射)해 '0'이 발견된 것이다. 대 수학자이셨던 김용운(金容雲) 교수께서 필자에게 서신으로 가르쳐주셨던 당신의 지론이기도 하다.

인도인이 '0'을 발견한 후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9개의 숫자에 '0'이 편입되는 바 이는 수학계의 대사건이다. '0'은 편입생인 셈으로 따돌림을 당하기 마련인데 '0'은 어떤 수(數)로도 나눌 수 없으며, 아무리 큰 수라 할지라도 '0'으로 곱하면 '0'이 된다. '0'이 숫자의 왕이 된 것은 법왕(法王)이신 붓다의 깨달음의 정수가 '0'에 담겨있는 까닭이 아닐까.

대부분 불교의 교의(敎義)는 수로 표현되었다. △일련탁생(一蓮托生) △불이문(不二門)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오백나한(五百羅漢) △육바라밀(六婆羅密) △칠불(七佛) △팔정도(八正道) △구품(九品) △시방(十方) △108번뇌 △팔만대장경 등이다.

사찰의 만(卍)과 히틀러 나치의 문장인 ㅏ(swastica)는 어떤 관계일까. 팔랑개비 풍차모양으로 우측의 풍향으로 돌아가는 ㅏ은 '우(右)만', 사찰의 만(卍)은 '좌(左)만'이라고 한다. 이 문장의 유래는 세계 최고(最古)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 유프라테스 · 티그리스 · 인더스 계곡에서 발견되었다. 卍의 중앙의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한 역동적인 선으로 표현되었다. 원시 인류의 보편적인 태양숭배 의지처의 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 흔적이 보인다. ①태양 ②길상(吉祥) ③윤회를 뜻하는 이 문장(紋章)에서 히틀러의 선조인 인도의 아리안족은 ①, 사찰에서는 ②, ③을 선택했다. 히틀러는 모든 독일 국민들이 자신을 태양처럼 숭배하라는 뜻에서 이 문장을 택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 때 들어온 산스크리트어인 ∴의 발음은 이(伊), 뜻은 '기도로 얻다'이다. 오늘날 대웅전 지붕 옆면에 있는 삼각형 합각(閤閣)의 원이삼점(圓伊三點, ∴)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인도문화가 해상으로도 들어왔는데 백제에 인도 승려인 '마라난타'가 불법을 들여온 포구(浦口)를 오늘날 법성포(法聖浦)라 부르고 있다.

붓다가 45년의 설법 가운데 25년 동안이나 머무르셨던 곳이 사위성(舍衛城) 일명 실라벌성(室羅筏城)이다. '실라벌→서라벌(신라의 옛이름)→셔ᄇᆞᆯ→서울'의 유래이다. 신라는 계(戒 · SiLa)에서 비롯되었다. 본래의 불교용어를 기독교에서 차용(借用)해 쓰게 되어 불교계에서 바뀐 용어로는 선교→포교, 장로→큰스님, 기도→염불, 예배→예불 등이 있다.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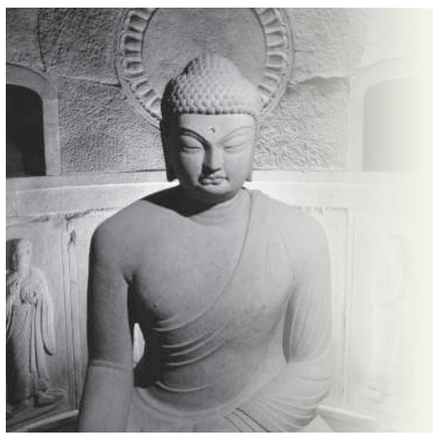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글'은 어떠한가. 지난해 12월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께서 올해 한 법회에서 한글은 신미(信眉) 대사가 창제하셨다면서 못 박아 말씀하셨다. 이 이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의 특징은 방대함과 정확성인데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기록이 〈세종실록〉에 없다. 국시(國是)가 유교인 조선시대에 붓다의 일대기인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찬양가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여기에다 합본인 〈월인석보〉의 서문에 세종께서 불교교의에 맞는 108자로 글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미 대사의 부친은 태종 때 영의정까지 지냈던 양반의 가문이었다. 신미 대사의 속명은 김수성(金守省)이며, 아우는 집현전 학자인 김수온(金守溫)으로 언어학에 두루 능통했던 형을 세종에게 소개하여 발탁되었던 듯하다. 논란이 있는 주장이겠으나 필자는 이 주장에 마음이 기운다.

이밖에도 인도에서 들어온 문화는 뜻밖에 많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팔꽃(morning glory)'은 인도의 귀화종이다. 인도의 놀이인 장기는 중국을 거치면서 변모되었으나 인도에 사는 코끼리(상 · 象)가 남아있다. 생선의 '아가미', 부엌의 '아궁이', '문지방 밟지마라 재수없다' 그리고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놈'이라는 속언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4계급 아래인 불가촉천민(Untorchable)의 발에서 유래되었다.

어두운 녹갈색인 카키색도 영국의 식민지 당시 인도병사의 제복에서 비롯되었다. 덕수궁의 건축양식인 건물 전면 둥근 기둥의 열주식(列柱式) 천개(天蓋 · porch)도 인도 건축양식이다. 열대 나라에서 외부의 뜨거운 열기(熱氣)를 건축의 전면에서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공법(工法)이다. 인도의 KA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모델이다.

인도에서 유입된 불교문화에 대한 내용이 뜻밖이라는 독자가 많으실 듯하다. 이 세상에는 각자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구(警句)를 '그리하지 않을 듯한데 실제로 그리하구나', 불연기연(不然其然)이라고 한다.



6세기 인도 수학자들은 空을 수학에 투사해 '0' 발견
붓다가 머문 '실라벌성', 韓서 서라벌→ 서울로 변화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신미대사 도움 있어 가능
붓다의 中道, 마음자리 '0'있을 때 행복하단 가르침

지금까지의 생활 불교문화 외에 삼국시대부터 온 백성과 국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불교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일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본다.

'0의 행복' 찾다

어느 해 병원의 회복실에서 느낀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은 아니었다. 생각은 비약하여 고교 수학 시간의 X, Y 좌표평면이 떠올랐다. 나의 마음자리(불가에서는 염처(念處))가 음주 생활일 때는 ⊕에서 즐거웠고, 입원할 때는 ⊖로 괴로웠다. 지금의 마음자리는 0에 있는 듯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0의 행복'이라고 외쳤다. 회진을 돌던 의사는 회복기의 후유증으로 오해했다. 붓다 역시 마음자리가 태자 시절에는 ⊕, 고행시절에는 ⊖, 득도하신 후에는 마음자리가 0(공(空) · 중도)에 있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즉, 인간의 시간에는 ①즐거움 · 좋음의 시간 ② 괴로움 · 싫음의 시간뿐 아니라 ③즐겁지도 괴롭지도, 좋지도 싫지도 않은 즐겁고 좋은 시간을 깨달으신 것이 '중도(中道)'였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붓다의 깨달음은 없는 사실을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제3세계의 시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대발견의 명제(命題)일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가장 풍부한 이 제3의 시간이 특별하지 않은 보통(普通)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놓치고 살게 마련이다. 병상은 나에게 보리수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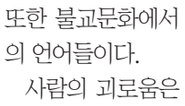
붓다 득도의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 싯달다 태자 왕가 이름의 돌림자는 농경 국가답게 '밥 · 반(飯)'이었다. 아버지 정반왕(淨飯王)을 비롯해서 백반(白飯), 곡반(斛飯), 감로반(甘露飯)이었다. 태자는 상품(上品)의 쌀밥 맛을 좋아하는 미식가였으며 수학에 비상한 천품을 갖고 태어났다고 〈불소행찬(佛所行讚)〉이라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은 고행을 한 만큼 영혼의 세계는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붓다는 출가 후 5년 6개월 동안의 고행 수도가 무익(無益)함을 깨닫고 중도(中途)에서 중단하였기에 중도(中道)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계기는 수자타라는 처녀의 쌀 우유죽 공양으로 몸을 추스르시게 된 사건이 아닐까.

붓다는 재수(再修) 끝에 밥맛을 통해 이 세상에는 '제1세계인 맛있다'(+)와 '제2의 세계인 맛없다'(-),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0) 제3의 보통 행복의 세계를 발견하신 인생의 '콜럼부스'다. 고승(高僧)들이 제자에게 의발(衣鉢, 옷과 밥그릇인 바리때)을 전하는 전통은 밥그릇이 붓다 깨달음의 기념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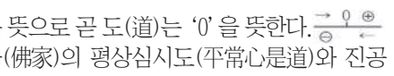
붓다의 '중도'가르침은

붓다 이전의 많은 선배 스님들은 왜 득도하지 못했을까. 이들은 세속에서의 ⊖맛을 출가 후에도 같은 쓴맛⊖만 보았기 때문이다. 붓다 깨달음인 중도(中道)는 수학의 좌표평면에서 마음자리가 0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마음자리를 중도(0)에 두는 것이 중심(中心)이며 모으는 것이 집중(集中)이요, 마음자리를 0에 정(定)하는 것이 '선정(禪定)'이다. 이 또한 불교문화에서 전해진 오늘날 우리 생활 속의 언어들이다.

사람의 괴로움은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긴다. 불교의 대명사인 염불(念佛)의 '염(念)'은 '지금(今)+마음(心)'이다. 즉 염불은 마음자리가 양극단(⊕⊖)을 피하고 '지금 마음(0 · zero mind)'에 두는 중도(中道)이다. '역전(驛前)앞'에서 '전(前)'은 '소리'이며 '앞'이 뜻이듯이 중(中)은 '발음'이며 도(道)가 '뜻'이다. 도(道)를 파자(破字)하면 '首(처음 · 0)'와 '辵(쉬엄쉬엄 갈 착, 일명 책받침)'의 합자(合字)이다. 즉 마음자리가 처음으로 간다는 뜻으로 곧 도(道)는 '0'을 뜻한다.



불가(佛家)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진공묘유(眞空妙有) 그리고 노자(老子)의 명구(名句)인 '도생일 일생이이생삼 삼생만물(道生一 一生二二生三 三生萬物)'에서 도(道)를 0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뜻이 가능해진다.

붓다의 중도(中道)와 공자의 중용(中庸)은 쌍둥이 말이다. 용(庸)을 '평상야(平常也)'라고 하여 일상(日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평범(平凡)+일상(日常)'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물리지 않는 쌀밥맛과 물맛 같은 '중도 행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중도(中道)와 중용(中庸)은 같은 개념어인데 영역(英譯) 또한 복수인 'Happy midium'과 'golden mean'으로 흥미롭다. 여기서 'mean'은 뜻의 의미가 아닌 '절묘한 중간'이다. 그러나 초보의 해석으로 '인간이 발견한 금쪽같은 뜻'이라는 의미도 살리고 싶다.

난해하게 인식되는 불교 사상들은 사실 상식의 철학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고 하여 '의지종교(依自宗敎)'라고 한다. 즉, 종교란 근본(宗)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敎)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불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편(方便)불교를 믿고 있다.

당나라의 운문(雲門) 선사께서 불교를 쉽지만 정수(精髓)를 깨우치게 창안하신 것이 일자관(一字關)이다. 한 제자의 불교에 대한 질문에 '보(普)'라고 하셨다. 선(禪)불교의 개창도량(開創道場) 가운데 보통사(普通寺)라는 절이 있다. 불교는 '보통의 시간'을 행복으로 깨닫는 심교(心敎)이다. 불교의 정수(精髓)인 선(禪)을 일명 무사선(無事禪)이라고 한다. 무사(無事) 역시 불교에서 온 말로 '무사하시죠'라는 인사말은 일상어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촌 사람들은 '무사한 보통의 시간'이 곧 행복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진리의 보배 중생 근기 맞춰 설하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⑨ 네 가지 무거운 책임과 보배창고

"또 대지가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큰 바다와 산과 초목과 중생을 대지가 싣고 있는 것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은 원력의 대지를 만들어 그 위에 네 가지 책임을 맡습니다. 그 네 가지 책임이란 선지식을 떠나 정법이 아닌 것을 들은 중생들을 인간과 천상의 선근으로써 키워주고 성문(聲聞)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에 맞는 것으로써, 연각(緣覺)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각에 맞는 것으로써,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에 맞는 것으로써 각각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의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원력의 땅을 만들고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는다면 널리 중생들의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큰 자비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 세상에서 진리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또 대지에는 네 개의 큰 보배창고가 있습니다. 첫째, 값이 없는 보배요, 둘째는 값비싼 보배며 셋째는 값이 적당한 보배, 넷째는 값싼 보배입니다. 이것을 대지의 네 가지 보배창고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은 서원의 대지를 만들어 중생의 네 가지 가장 크고 훌륭한 보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법을 들은 바 없는 중생에게는 인간과 천상의 공덕과 선근으로써,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으로써, 연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연각으로써, 대승을 수하는 사람에게는 대승으로써 각각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보배를 얻은 중생들은 모두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에 의해서 기특하고 희유한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큰 보배의 창고란 결국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대지가 일체 만물을 실어주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바다, 산, 초목, 중생이라 말하고 그것에 비유하여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네 가지 책임을 맡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정법을 거두어들이려는 대승 보살의 책임이라 하여 보살의 책임을 밝힌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 정법을 듣지 못한 불우한 중생들에게 선근을 심어 키우게 해 인간 세상과 천상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고 2승들에게는 그들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쓰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법으로써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에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不能度無緣衆生)는 말이 있다. 〈증일하함경〉에는 부처님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중생들을 믿음의 땅 위에 서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큰 자비로 세상을 위해서 진리의 어머니(法母)가 되겠다는 말이 참으로 거룩하게 느껴진다. 거듭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보배의 창고가 된다고 설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값비싼 보배, 값이 적당한 보배, 값싼 보배를 대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천상의 공덕과 성문의 법, 연각의 법, 보살의 법을 써 정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네 가지 보배가 된다는 말이다. 이는 모두 진리의 보배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구분해 설해 놓은 말이다. 내가 가진 보배가 어떤 것인가? 마음이 보배이다. 이 마음을 무가지보(無價之寶)라 한다. 보배로써의 가치가 너무 높아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寒山頂上月輪孤(한산정상월륜고) 한산의 산 위에 달이 홀로 떠 있어

照見靑空一物無(조견청공일물무) 아무것도 없는 푸른 하늘을 비추네.

可貴天然無價寶(가귀천연무가보) 귀하기만 하여라. 천연 그대로의 값없는 보배여.

埋在五陰溺臭軀(매재오음익취구) 오음에 파묻히고 냄새나는 몸속에 빠져 있구나.

한산시(寒山詩)에 나오는 마음을 무가지보로 표현한 시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이타 대비원력+수행=관음신앙 완성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㉜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세 가지에 대한 믿음과 각오

불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음신앙은 신앙적 가피력을 구하는 타력적인 면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어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자력적인 양면이 함께 공존하는 신행입니다. 따라서 관음신앙은 처음엔 타력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자력적인 수행의 단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완성된 구도자로서 중생구호의 대비심에 바탕을 둔 원력과 대자대비의 보리심을 승화시킨 분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신앙은 신앙적인 가피력에 의존하는 타력적인 부분과 수행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 스스로 중생을 구하겠다는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자비실천을 통해 보리도를 완성해 나가는 자력적인 수행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신행입니다. 그러므로 관음 신행을 타력적 영역에서 자력적 수행의 단계로 반드시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의 신앙적 가피력에 대한 확신과 관세음보살의 서원과 원생 그리고 정각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발보리심과 중생구제의 자비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각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음신앙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첫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호하시는 신앙적 가피력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세우신 서원(誓願)과 원생(願生)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大悲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행자 자신 스스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중생구제와 정각(正覺)을 스스로 이루고 말겠다는 대비심에 토대를 둔 보리심(菩提心)을 함께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과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과 원생 그리고 대비심과 발보리심 등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굳건하게 갖추어졌을 때 관음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서원(誓願)

불자 여러분! 〈60권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호하려는 다양한 모습의 서원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대비법문의 광명행을 행할 때에 큰 서원을 발하였으니, '일체 중생을 섭수하는 서원'이라 이름 하였다. 즉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악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대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암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옮겨 다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원수를 만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슬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이 일으키신 서원(誓願)은 대자대비심으로 일체 중생구제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에서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을 일체의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이타적인 대비원력의 의지가 깨달음의 수행과 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관음신앙은 완성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⑨ 괴로움의 성찰

'나'라는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모든 번뇌의 경〉

태어남, 그곳에 '나'라는 생각이 붙어 가짜가 된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가짜다, 진짜다' 할 필요가 없다. '나'라는 생각 때문에 환(幻)이 되고 가짜가 된다. '나'라는 생각으로 환(幻)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 태어남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나의 견해로써 사실을 왜곡시켜 본래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므로 괴로움이 생성된다.

지금 만들어진 조건을 살펴보면 어디에 옳음을 두고, 어디에 옳지 않음을 두겠는가? 옳고, 옳지 않음의 기준점을 '누구에게 둘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기준점을 둘 수 없다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것도 '옳다, 옳지 않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견해 속에 진실은 없다. 진실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을 갖는다. 중심이라는 무엇이 나타나야 하고, 그 중심이 물질이 된다면 어떤 물질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중심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생성하는 일이다.

어떤 물질도 중심이 될 수 없을 때, 모든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곳에 나, 너라는 어떤 중심을 만들지 않으므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룬다. 존재하는 물질 속에 멈추어진 상태의 침묵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정점을 찍을 '나' 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이다. 왜곡된 정보로 표적 없는 과녁에 화살을 쏘아 올리지만, 매번 빗나가는 것은 활을 잘못 쏜 것이 아니라 과녁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일어난 줄 알아버리면 괴로움의 소멸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이 없게 되면, 괴로움의 생성이 없고, 괴로움의 생성이 없으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명제는 처음부터 나타난 적이 없게 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나라는 집착이 사라져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디에도 견해로 알아야 할 것이 없는 사실로 수용되어진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괴로움이 아닌 견해로서 왜곡을 일으킨 자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지도 않은 허언(虛言)이다.

알아야 하는 마음은 알지 못함에서 나왔지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알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알아야 하는 마음과 알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가 같은데 지금까지 이 둘을 오가며 분별하였음이 확연해지는 것이다. 두 마음 사라지니, 지금 있는 그대로 모두 나타나, 방해함 없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툼이 알려진다.

생사(生死) 병사(病死) 그저 부는 바람인데,
모든 것 내어주고 부들부들 떠는 허깨비
아무 뜻 없이 와서 뜻 없이 가는 그 바람.
무슨 의미가 그리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네.
행주좌와(行住坐臥)어묵동정(語默動靜),
지난 번 불었던 그 바람과 다르지 않은데.
오늘도 그 바람과 다르게 해석하며 즐기는구나.
생각이라고 해도,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지나온 그저 부는 바람.
누군가에게 스치기만 할 뿐, 그저 부는 바람
스치는 것 각자의 몫, 그러니 각양각색
아무리 메아리쳐도 돌아오는 것 없는 한때 부는 그 바람.
돌아보지 마라 돌아오려 하지 마라.
지금
그저 부는 바람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뇌출혈·골절상으로
혼수상태 빠진 가장의 사투

네팔 이주노동자 케빈씨…가족 위해 공장일에 배달까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경 헤매…병원비 4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8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 영산재 제9호 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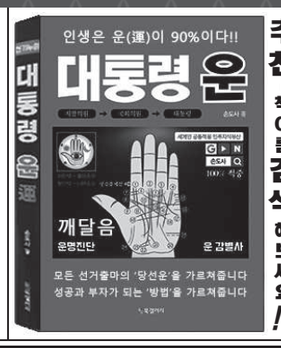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자비행법 전수인 모집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 사부대중의 전수인을 00명 모집합니다 ❊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지리산향기암 법장행자
010-2367-0086

공양주 모십니다

강원도 양구 흥덕사
010-5049-15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 65세 이상
숙식필수(월4일 휴무)
초보자 환영 / 중국교포 환영
010-4253-9110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010-4435-5660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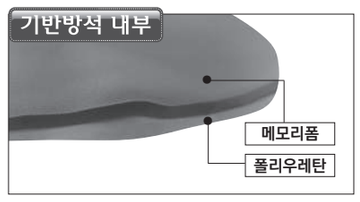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8호 | 18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9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2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관벨설치, 음향완비, 도배)
- 5년전 인수금액보다 3백만 절상

보문산 약사도량 지장사
010-3049-581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 5천 조정 조금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171)대웅사
- 토지 : 5,824평(종교용지 : 1,690평, 산168-2 : 4,134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할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 절충가)

010-4225-0012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 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550만원, 월세 30만원
- **비구니스님 환영**

010-3132-9666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 구명지하철역 5분거리
- 3층 / 48평, 엘리베이터, 법당, 방2, 주방, 삼존불, 주차장
- 보증금3천 / 시설비1천(절충가능) / 월세75만
-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

010-8551-4360

멋진 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멋진 법당
- 상가 2층 60평(시설완비) 방2, 주방, 화장실3
- 넓은 옥상, 방음완비
- 민원없고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급) 안 내

- 종교부지 760평 계획관리. 대재 240평
- 감곡 장호원 KT역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종각, 요사채, 휴게실, 찜질방2, 연못, 잔디정원, 요사3동, 산신각, 차고40대, 대형해수관세음보살, 5층석탑, 진사리탑
- 친견하시고 상담하세요
- 매매상담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2883-2255
010-5223-3705

사 찰 터 안 내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 산 1,6000 평, 평당 1십만원
- 산 밑에 대지가 있는데 그곳도 별도로 금액은 상담후 양수가능 합니다.
-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산에 돌이 많고 경치가 좋습니다
- 자세한것은 문의전화 바랍니다

010-4204-1060

사찰안내 가람

- 강원 동해 사찰(법당 : 목구조)
- 부지 총면적 : 1170㎡(353평)
- 건물 총면적 : 211㎡(64평)
- 가액 : 6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안내 가람

- 경남 김해 시내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997.3㎡(301.6평)
- 건물 총면적 : 294㎡(89평)
- 가액 : 15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절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 면적 : 총680평
- 건평 : 50평
- 가액 : 6억8천만원

010-2315-72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炎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⑤ 전북 김제 금산사 보리수나무(보리자나무)

같은 이름 다른 나무, '보리수'

우리나라 '보리수'는 보리자나무
피톤치드 우뇌의 명상에 도움

산문에 일주문은 보이지 않고 섬처럼 고립된 듯한 석성이 산비탈을 부여잡고 있다. 올려다보니 개화문 현판이 이승의 삶과 저승의 환상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양탈하는 이에게 묻는다. "무얼 보러 왔는가?" 그래, 나무였지.

포장도로를 가로질러 모악산 물줄기 따라 운명대로 자란 키 큰 참나무, 전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에 홀리다 보니 일주문은 스치듯 지나치고 어디선가 오른쪽 눈을 궁굴리게 하는 노란 불빛이 휙 끼쳐온다. 다시 가로질러 작은 전각 안으로 고개를 밀어넣으니 세월의 소원을 켜켜이 묻힌 돌미륵이 눈동자 없는 시선으로 내 등 너머를 응시한다. 복전함 위 성냥개비로 불이라도 켜고 싶었지만, 등산화 끈 풀 생각에 목례만 하고 급히 숲으로 걷는다.

어릴 적 두려우면서도 손을 모으게 했던 풍경에 움찔한다. 서낭나무인 느티나무 앞에 놓인 막걸리 두 병, 천년의 주목 가지를 열매처럼 뒤덮은 색색의 리본들. 무슨 내용인지 엿보려는데 또 질문이 나온다. "무얼 보러 왔는가?" 매운바람에 흉흉하다. 나무였는지, 나였는지.

시린 걸음으로 금강문, 천왕문, 보제루를 뚫고 나오니 넓은 경내 마당이 수확을 끝낸 겨울 김제평야 같다. 산과 평지의 경계에 부채처럼 펼쳐진 전각 가운데 어느 곳부터 인사해야 할지 눈이 호사를 하는데,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상 드문드문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마음을 선점한다.

둥근 돌로 얕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나무에 다가가니, 원시 지구의 불모지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등공신인 지의류가 땅 위 줄기를 감싸고 있었고, 그 끝자락에 보리수나무 글자가, 그 위로 어두운 회백색을 띠면서 세로로 갈라진 나무껍질이 이따금 지의류를 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연한 색감의 마지막 가지에 갈색 털로 부숭부숭한 겨울눈이 봄빛을 갈망하고 있었다.

허리 숙여 열매를 주워본다. 도토리를 꽉 누른 듯한 넙데데한 흙빛 구슬들에 난 솜털들이 손가락 피부를 까칠하게 한다. 그렇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나무는 배고플 때 맛나게 따먹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우리의 보리수나무도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함께한 상록 교목 무화과나무류인 인도보리수도 아니다. '보리(菩提)'라는 깨달음은 기후라는 장벽을 깨고 열대에서 온대로 넘어왔지만, 열대 식물 인도보리수는 생존이 곤란해 중국에서는 피나무과인 보리자(菩提子)나무에서 깨달음을 보려고 했고, 우리는 자생의 보리수(甫里樹)를 대신해 보리자나무를 보리수나무로 부르고 있다. 부처님의 숭고한 깨달음 앞에서 과학자들이 만든 식물 분류 체계라는 엄격함은 비켜설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전북 김제 금산사 보리수나무(보리자나무).

광합성을 하는 좌우비대칭의 푸른 잎들이 없는 겨울나무 아래 머물면서 막 상쾌해지지 못 하는 건 혹 피톤치드 양이 줄어서일까? 그래서 보리수나무가 아니라 보리자나무라고 읊조리며 늘 푸른 인도보리수를 그리워하며 그 옆 또 다른 보리수나무로 다가가는 걸까?

〈천년도서관 숲〉을 보면,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수행을 할 때 숲속의 피톤치드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이는 물론 상상의 영역이지만 분명 과학적으로는 있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피톤치드는 좌뇌의 기능을 억제하고 우뇌의 명상을 돕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반에 들도록 무의식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글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사시사철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인도보리수와 늘 함께할 수 없어 과학을 넘어서는 무한의 상상으로 보리수나무를 안고 있으면 깨달음이 좀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과학은 설명이고 종교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다 같은 실재에서 오는 것, 그래서 왕벚나무 꽃이라도 보면 보리수나무 꽃이라도 보면 깨달음 갈구에 면벽하고 싶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준비하는 계절, 나무는 잠시 잊고 진표율사가 766년에 건립했다는 외부 3층 내부 통층 미륵전으로 향한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1장 6척의 미륵장륙삼존불이 압도하며 십선도 하나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을 내리누른다. 금산사 미륵전 홍보영상 '보리의 약속'을 보면, 미륵전은 거울에 비춰보듯 자신을 비추고 비추어보아 자신을 맑게 하는 곳이라는데, 나는 그저 단단한 목재처럼 뻣뻣이 고개를 들고 56억 7천만 년 동안 어떤 행색이든 살아있기를 갈구한다. 그것이 상상 속 환상일지라도 망신참회나 선수행이 어렵게만 해 미륵본존불 왼손의 금빛 보주가 내 입속으로 장애 없이 굴러들어오기를 또 희구하는데, 끝을 모르는 사방에서 다시 또 묻는다. "나무를 보러 왔는가, 나무를 보는 너를 보러 왔는가?"

미륵전을 나와 겨울새에게 먹히지 않은 빨간 열매를 쭈글쭈글하게 달고 있는 산사나무에 예의를 표하고는 다시 보리수나무를 본다. 곧 올 봄이 그대에게는 미륵불 현전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계절마다 찾아와 녹음 무성한 피톤치드 맡으면 내게도 현전삼매가 나타날까? 이승의 성돌 하나가 날아와 내 머리를 친다. 아프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⑤ 차창룡의 '나무 물고기'

항상 깨어있으라는 경책 소리, 목어

나무 물고기 / 차창룡

물고기는 죽은 후 나무의 몸을 입어
영원히 물고기 되고
나무는 죽은 후 물고기의 몸을 입어
여의주 입에 물고
창자를 꺼내고 허공을 넣으니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입에 문 여의주 때문에 나무는
날마다 두들겨 맞는다
여의주 뱉으라는 스님의 몽둥이는 꼭
새벽 위통처럼 찾아와 세상을 파괴한다
파괴된 세상은 언제나처럼 멀쩡하다
오늘도 이빨 하나가 부러지고 비늘 하나가
떨어져나갔지만

– 차창룡 시집, 〈나무 물고기〉, 문학과지성사, 2002

해석이 필요 없는 명시다. '나무 물고기'는 '목어(木魚)'를 말한다. 절집에 가면 범종루(梵鐘樓)에 사물(四物)이 걸려 있다.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板)이다. 범종은 큰 종을, 법고는 소가죽으로 만든 큰 북을, 운판은 구름 모양으로 된 철판을 말한다. 목어는 글자 그대로, '나무[木]'로 만든 '물고기[魚]'다. 이 시는 그 목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다. 같은 시집에 실린 차창룡 시인의 다른 시 '선암사 목어'를 보면 목어를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알 수 있다.(좀 긴 산문시이지만, 이보다 더 목어를 잘 설명할 수 없기에 전문을 다 인용한다.)

"어느 날 깨어보니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잉어였다. 물고기인 나는 헤엄을 쳐야 했지만, 커다란 나무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밤에는 눈 감고 잠을 자고 싶었으나, 물고기 눈은 절대로 감을 수가 없었으니,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했으며, 그리하여 늘 참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참선의 공덕으로 등에 솟아난 나무가 내 몸으로 들어왔고,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었다. 거추장스런 내장을 다 치우고 보니 나의 뱃속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장한 허공이 들어찼다. 내 뱃속을 막대기로 두들기면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떴고, 물고기들의 몸에서는 나무가 자라 올랐다. 사람들을 깨우고 물고기를 괴롭히는 것이 하 나는 즐거워, 아침저녁으로 두들겨댄 뱃속의 허공은 자꾸만 깊어만 갔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나의 몸은 바람에 깎이고 세월에게 먹히어 서서히 없어져가고 있었다. 없어져가는 나의 몸속에서는 언제부턴가 새로운 욕심이 새록새록 자라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뱃속에 허공이 들어찼던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龍)이 되는 것이었다. 용이 되기 위해서는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 용문(龍門)이라는 가파른 협곡을 뛰어올라야 했다./ 복숭아꽃 필 무렵 나는 강을 거스르고 거슬러 용문에 다다랐는데, 무려 삼천 번을 시도했으나 말짱 도루묵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나의 비늘이 붉게 물들고 나서야 겨우 용문을 뛰어올라 여의주를 입에 물었다. 나의 머리는 용이 되었으나, 아직 용이 되지 못한 물고기들에게 잠깐 연민의 정을 느낀 탓으로 몸뚱이는 그만 물고기로 남게 되었다. 물고기와 나무와 용의 몸을 한꺼번에 짊어진 나의 몸은 한껏 고달프다. 새벽마다 용울음 소리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눈뜬 물고기들의 새벽잠을 깨워야한다. 나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의 등에는 나무가 솟아오른다./ 어느 날 깨어나보니 나의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붕어였다."

같은 시집에 실린 '선암사 목어'다. 설화(說話)를 배경으로 목어가 세밀화(細密畵)처럼 자세하게,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실제로 목어는 나무로, 잉어 모양의 물고기로 만들어졌다. 목어고(木魚鼓)·어고(魚鼓)·어판(魚板)이라고도 한다.

나무로 된 물고기의 배 부분을 몽땅 파내고 나무막대기로 그 물고기 배의 양쪽 벽을 쳐서 소리를 나게 한다. 중국에서 유래된 이 목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시는 그 두 가지 유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백장청규(百丈淸規)〉에서 나온 유래다. 언제나,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를 조각하고 그것을 침으로써 수행자는 잠의 혼미를 쫓아내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경책의 의미다.

다른 하나는 설화(說話)다. 옛날 한 승려가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옳지 못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 승려는 곧바로 물고기의 과보를 받았는데, 등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서 풍랑이 칠 때마다 그 나무가 흔들려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 스승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그 제자가 물고기로 태어나 고통 받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불쌍히 여긴 스승은 곧바로 수륙재(水陸齋,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을 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를 지내 그 제자를 물고기 몸으로부터 해탈하게 하였다. 스승 덕분에 물고기 몸으로부터 벗어난 그 제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신의 등에 나 있던 나무로 잉어 모양의 물고기를 만들어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끔 했다는 이야기다. 그 형태 또한 처음엔 단순한 물고기 모양이었지만, 점차 용머리에 고기의 몸을 취한 용두어신(龍頭魚身)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용이 되다 말아서인지 대부분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목탁은 이 목어가 변형된 것이다.

차창룡 시인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유래를 바탕으로 이 시를 썼다. 목어의 생김새와 유래를 정말 실감나게, 잘 형상화했다. 특히 이 시의 2연 '창자를 꺼내고 허공을 넣으니/ 물고기는 하늘을 날고/ 입에 문 여의주 때문에 나무는/ 날마다 두들겨 맞는다'는 활유는 기막힌 절창이다. 사실 〈나무 물고기〉는 시집 전체가 불교시로 가득 차 있다. 불자나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매우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만날 수 있다.

이제 차창룡 시인을 밝힌다. 그는 '동명(東明)' 스님이다. 2010년 필자와 함께 출가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을 맡고 있다. 세속에 있을 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고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되는 등 유명 문인이었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부처님 조성 비밀 의식의 전수

불복장 작법 및 점안의식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앞장서
2019년 무형문화재 불복장 작법 보존회 139호로 지정된 회원스님들께서
강의를 합니다. 이에 불복장 의식 보존과 전승에 뜻을 둔 학인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2022 수계예정자 가능)

모집일정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년 3월 10일(방문, 이메일, 우편) ※songgang35@daum.net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백양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다운로드)
※http://www.baekyangsa.com
2.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매

모집인원 전수과정(1년) : 00명

수 강 료
1년(2학기 12강) 학기당 30만
교육기간 : 22년 3월 ~ 12월(1년과정)
교육장소 : 백양사 향적전
교육시간 : 2주, 4주차 월요일(오후 2시~ 4시)
강 사 진 : 불복장 작법 보존회 139호
(원로의원 보륜 성오스님. 현함 도성스님)
영산재 번장엄 등 50호(청산스님)

접수 및 문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백양사 종무소
※전화 : 061-392-7502 팩스 : 061-392-2081
※학감스님 : 010-4161-5317

불복장 작법 보존회 현함 도성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❸ 당신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르죠?

▶ 한줄 요약
우리의 인식은 잘못될 수 밖에 없기에 타인을 생각할 때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관계 어려움 극복, 겸손한 인식서 시작



무의식 안의 씨앗

불교 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심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장의식' 즉 아뢰야식(alaya viinana)인데, 이것은 우리의 다섯 감각 기관(五根)과 여섯 번째 기관인 의근(意根)과 심의식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무의식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잠자고 있는 씨앗(Skr.bija)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저장소에는 온갖 종류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우리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의 부모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라이언은 항상 음악 분야의 직업에만 매료되었고 부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라이언의 삼촌이 매우 재능 있는 굉장한 음악가였다는 겁니다. 라이언이 갖고 태어난 훌륭한 음악적 재능의 씨앗은 바로 삼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20~30 퍼센트 정도밖에는 모른답니다. 당신의 저장의식 안에는 조상들이 물려준 많은 경험과 씨앗이 아직까지 발현되지 못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경험으로 심어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새로 심은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심기 시작한 것인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경험했던 모든 감정을 이어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은 모든 삶의 경험은 우리의 저장의식에 들어가 씨앗의 형태로 응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특정한 씨앗에 물이 주어지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정신을 형성하는 심의식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불교 심리학에서는 기쁨, 분노, 슬픔, 갈망, 거만함, 의심, 사랑, 두려움, 시기심, 동정심, 자비심, 평온함, 혼란, 혐오, 증오, 마음챙김 등 적어도 51개의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식의 씨앗

인식은 우리 마음의 51개 의식 중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를 행복하게도 슬프게도 혼란스럽게도 또는 깨달음을 얻게도 하면서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붓다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들은 모두 저장의식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플럼빌리지를 방문한 아나벨이라는 방문객이 나를 만난 후 나의 목소리와 겉모습, 나의 눈과 피부색에서 몇 가지 감각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아나벨의 마음 속에는 나에 대한 인식이 이미 형성되었겠지요. 만약에 아시아 불교국가의 다른 비구니스님과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브리짓이라는 방문객이 나를 만났을 때를 봅시다. 그녀의 저장의식에는 이미 비구니스님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강한 인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리짓은 아나벨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에 대한 인식을 그녀의 마음 안에 그려 놓았을 거예요.

지금 법당에 앉아서 나의 법문을 듣는 7백 명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 7백 가지 다른 인식을 갖고 말할 거예요.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3억 인구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저장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테러리즘과 이슬람세계에 대한 인식의 씨앗을 바탕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3억 가지의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식의 작용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면 당신은 지금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인식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 남자나 여자의 현실적인 모습이나 본성은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성인이 될 때까지 저장의식 안에 응축된 씨앗 형태로 저장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면 당신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좋은 사람들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 당신은 그 저장의식에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남자나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에게 빠져드는 감정을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저장의식 안에 숨어 있던 오래된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킨 사람에게 바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첫눈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당신이 무의식 안에 갖고 있던 달콤한 기억이거나 고통스런 기억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불완전한 외부 인식 체계
불교선 '맹인'의 시각비유
겸손한 인식이 오해 줄여

당신에게는 어린 시절에 당신을 몹시 괴롭히거나 당신을 많이 비난한 사람이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육체적으로 닮은 사람, 비슷하게 걷거나 말하는 사람, 같은 피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즉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거나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무의식 안에 있는 옛날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아직은 현실 속의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은 사랑하는 사람의 본성을 진실하게 알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당신이 첫 번째로 인식한 사람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한 부분만을 인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만난 사람이 우리가 인식한 첫 번째 사람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신해 버립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인식한 일부분과 사랑에 빠진 것인데 말이죠.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점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됐을 때 당신은 아마 속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겠죠. 대부분의 갈등은 이렇게 상호간에 잘못된 인식과 불완전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저장의식의 씨앗에 따라 사람, 나무, 산, 강, 또는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고 붓다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코끼리를 처음으로 만져보는 맹인과 같은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마치 네 개의 기둥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귀를 만져본 다른 사람은 코끼리가 평평하고 부드러운 카펫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논쟁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견해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견해는 단지 하나의 인식이거든요. 모든 인식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와 같은 인식이 사물,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한 온전한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 풀기

불교의 경전 가르침 중에는 인식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길 위에 놓인 한 토막의 밧줄이 뱀으로 인식되는 예입니다. 그와 반대로 인식될 수도 있지요. 진짜로 뱀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한낱 밧줄로 인식하기도 하죠.

아마도 당신은 가끔 동료 중의 한 사람이 하는 말에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동료가 정말로 당신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거만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점점 더 미워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면에 더 많은 평화와 고요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날 다른 경우에 그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거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동료는 단지 그때 마음이 너무 조급했고 미숙한 방법으로 말한 것뿐일 거예요. 당신은 전체 그림의 작은 일부분만을 본 것이죠.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짜증이 났고 그래서 그 사람 근처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합시다. 당신의 이 짜증은 불완전 하거나 부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일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려 한다거나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계속 불친절하게 행동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먼저 불쾌한 말투로 시작했고 상대방도 불쾌한 말투로 대꾸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말죠.

누군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질 때 당신이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인식에 대해 매우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의 인식은 오해거나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 절대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마세요.

또 다른 경우, 당신의 감정이 평화로워졌고 그 사람도 또한 평화로워졌을 때 당신은 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저에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의 말을 들은 후 당신은 '아!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식을 겸손하게 하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충돌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오직 내면세계 그 한 구멍,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오늘 날씨가 따뜻한 거 보니까 개구리 입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허허허…. 여러분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죠? 여러분께서 여직껏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오늘은 질문과 토론으로 우리 해 보십시다.

질문자1(남)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윤회 사상에 대하여 큰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생사변이가 윤회이며, 우주의 물리적 변화가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변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도윤회의 깊은 도리를 우매한 중생이 믿지 못하므로, 옛 조사님들은 경전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한탄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성암 선사는 「권발보리심」에서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 못 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스님께 육도윤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자세하게 법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는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그럼 제법이 무아라면 어찌 윤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곧 만행(萬行)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 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도윤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끊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말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하나 디뎌 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한 발짝 떼어 놓고 또 한 발짝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지금도 얘기를 하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차를 한 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여기 올라오긴 해야겠고 이거를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걸랑은 데워 먹고 뜨겁걸랑은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化)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입니다. 윤회인 까닭에 그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空)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느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느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하니라.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인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이고 무엇에 끄달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느니라.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또 그것이 상세하게 돌아가겠으니까, 질문들 잘하셨어요. 별달리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세요. 아까도 물 얘기 했지만, 뜨거운 거를 억지로 식히려고, 금방 먹기 위해서 막 식히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다 띄워서 식혀서 먹어라. 재간대로 해라. 재간대로 하는 반면에 데워서 먹고 식혀서 먹어라. 매사의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간껏 식혀 먹고 데워 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식어.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 급한 거는 빨리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삶에 대해서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불교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신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서도 아니 되니까 토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틈에서 부처가 나는 것이지 우리들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 부처가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불도에 귀의해서 알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심으로써 부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제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윤회가 될 수 있겠느냐고 했죠? 무아라는 뜻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아가 뭔데요?

질문자1(남)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자기 자신조차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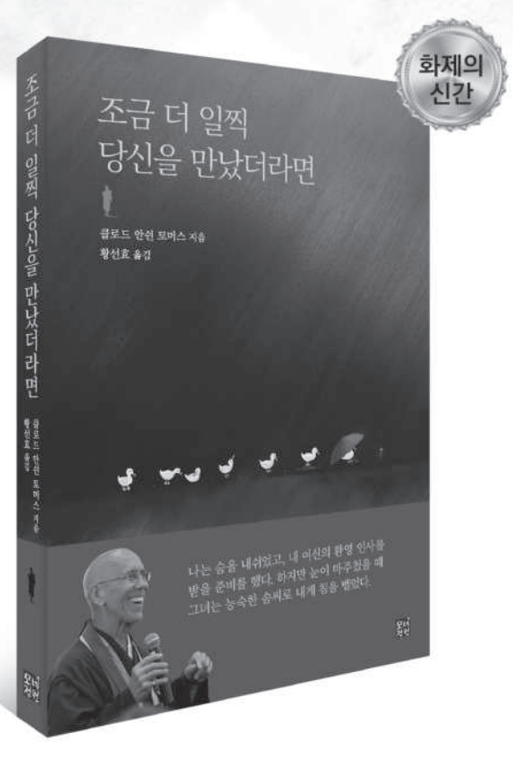
큰스님 우리가 제법이라 하면 일체를 말하고, 이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자아(自我)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이러한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이러한 무아가 어딨습니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딨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딨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또는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목석이니깐 무효야. 다 갖추어서 생김생김이 잘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이라야 그걸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뚱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우리가 따지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라

☞ 21면에서 계속

고 본다면 모두가 작은 것 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우린 움죽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죽거리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참, 아까 어느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댔죠? 피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더라?

질문자1(남) 네, 성암 선사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을 못 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 말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지 몸 떨어지고 난 뒤에 해탈을 하려면 해탈치 못합니다. 부딪침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윤회에 매이지 말고 모든 착을 떠나서 그대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대로 모두 하고들 계십니다. 그대로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모두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도리로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를 생각하면 꼭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난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입력이 돼서 바로 그게 악업 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안의 그 언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네 모습이 어떠하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소리겠죠. 하여튼, 누가 하는 소리든 그냥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느냔 얘깁니다, 예?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고 얽매여서 그냥 고인 물에서만 헤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능한 마음이 생겨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묘법이다. 마음이 묘하다. 마음이 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점프를 해서 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세계를 한 찰나에 돌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마음을 가둬 놓고 있느냐.' 했습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한마음을 말하고, 전체,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즉,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기 이전 마음은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입니다. 다스려야 할 선장! 잘못되고 잘된 걸 뻔히 아는 선장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내는 것을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니까 '요럭하면 안 되잖아. 이럭해야 되잖아.' 하고 다스리는 선장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게 선장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내니까 육신은 덩달아 따라서 움죽거려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말 저 말이 들어가면 산란해서 공부를 못 해요. 진짜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經)을 덮은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자꾸 이 말 저 말을 해서, 이리로도 갈 수 없고 저리로도 갈 수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면 그냥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놓는다면 몇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깨닫는 데 지름길이며, 또 업식을 다 무효화시키는 데 지름길이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지름길이며, 나를 건강하게 하는 데도 지름길이며, 모든 것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하십시오. 내가 열 마디 백 마디 해 봤자 여러분이 생각 한 번 잘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끌어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과 동일해야만이 바로 한자리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억겁을 통해서 바로 인연이 된 것입니다. (컵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컵이 아니었더라면 물을 담지 않을 것인데, 컵이 됐기 때문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요것이 인연입니다. 매사에 정말, 조금도 틀림없이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누가 만드느냐. 즉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데,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매양 나쁜 걸로만 아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매양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자꾸 마음을 내 준다면 선한 길로 접어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서 건져라, 이런 말이죠. 이 모두가 사람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차분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자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게 전부 한마음이 돼 주고, 악하게 마음을 쓰면 악한 사람으로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고 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마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자꾸자꾸 바뀌진다구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구요. 그러니 한 찰나에 살 것을 그렇게 해서 딴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그 습성에 또 매여서 착이 되고 습성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 물에 가라앉았다가 천 년에 한 번 떠오를 때에 구멍 뚫린 뗏목 하나를 만나서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도 수억겁을 거쳐서 된 겁니다. 여러분은 99%나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부처님이 될 수 없을까, 있을까.' 이러지 마시구요, '부처님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다면 그대로 부처죠, 뭐.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자1(남) 네,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윤회가 분명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저희들 현재 의식에서는 소소영영하게, 큰스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의식을 하는데, 지나간 전생 일은 현재에서는 하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도리입니까?

큰스님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친 분들은 과거 생을, 즉 말하자면 무아의 세계를, 이 사바세계와 무아의 세계를 그저 한 찰나에 들고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그냥 넘나드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삼천 년 전도 알고 삼만 년 전도 알고 삼십만 년 전도 알 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고만 하지 알려고는 안 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니 그저 모른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심안으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넘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안 하지도 말고 그저 차분히 진실로 믿고 내 뿌리에서만이 나올 수 있다 하고는 그냥 자꾸 자꾸 자꾸 지름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질문이라서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회 사상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 조상과 가족과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을 읽어 그들을 천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윤회를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지요?

큰스님 그래서 이 마음공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 캄캄하다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내도 문제가 되고요, 갖다 넣어도 문제가 되고, 하하하, 가도 와도 전부 걸려요. 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나도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에 한해서 때로는 꿈에 조상이 보이고 생시에도 조상이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아시죠.

너무 극성스럽다, 너무 서로 싸운다 이럴 때도 거기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뿐이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첨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둘이 아닌데 어째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구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 쓸 수 있으니 마음놀이입니다. 마음으로서 하는 거니 마음으로써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요기가 아프고 저 일이 안 되고, 무슨 돈을 줬는데 다 떼이고, 보증을 섰는데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둥 이런 말을 할 때면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쩌면들 저렇게 관습에 세뇌가 돼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 하구요. 아무리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아요. 능하게 좀 한 발짝을 떼어 놓지를 못해요. 그 어린애가 한 발짝 떼어 놨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너 한 발짝 떼었구나! 너 걸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심정일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해도 떼어 놓질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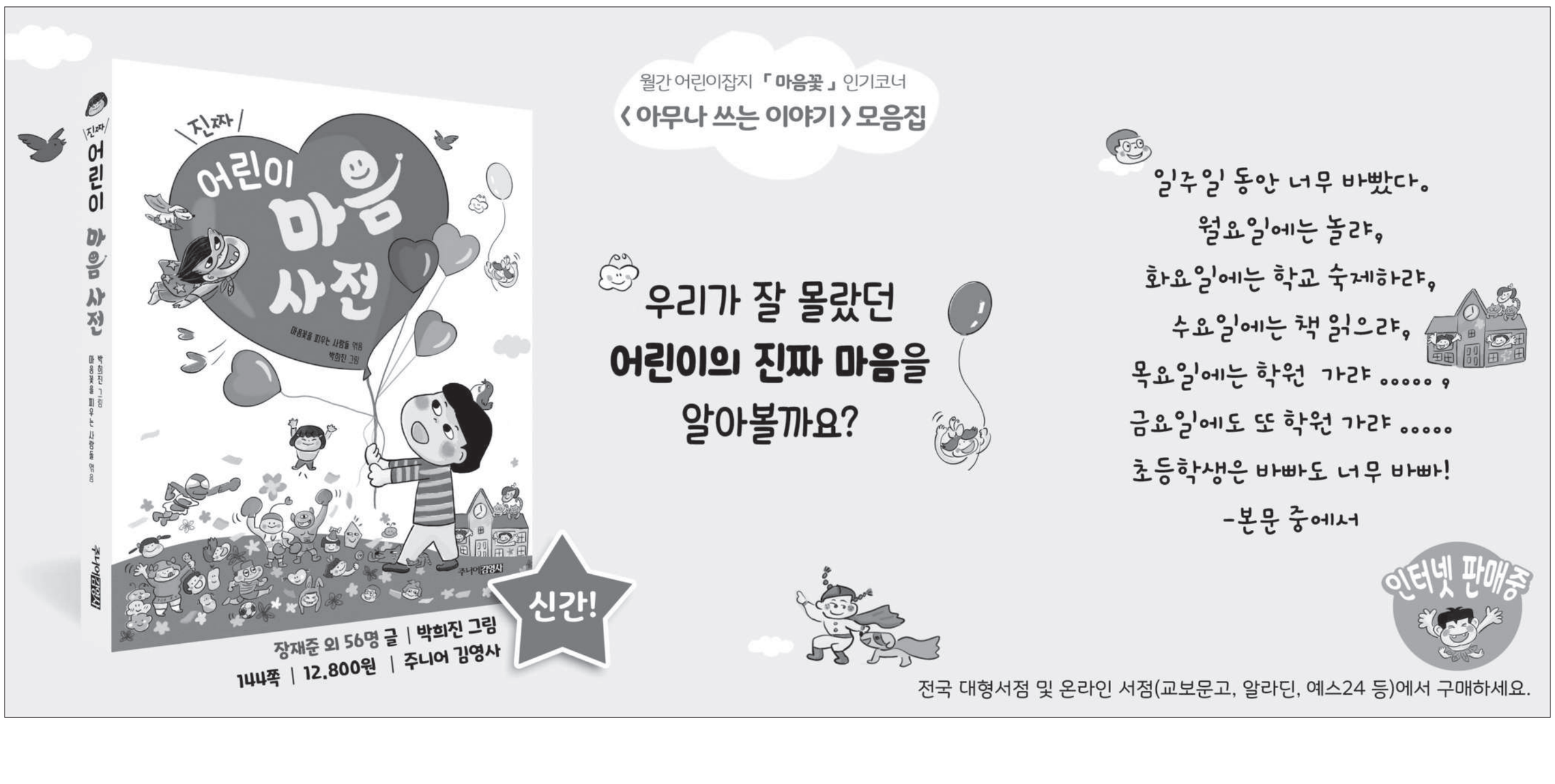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결을 못 해? 해결을 못 할 일이면 하질 말지, 애당초에! 아주 줄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집을 잡혀서 담보를 서? 부자지간에도 담보를 설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욕심이거든.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욕심에 의해서 담보를 잡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집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적게 먹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또. 내 몸뚱이가 집이라면 나는 오막살이 토굴이에요. 허허허. 빌딩이나 세련되고 좋은 집이 못 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뭐라고 물었는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뭐라고 물었나?

(다음 호에 계속)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3월 6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현불 논단 |

‘STOP’ 불교 왜곡 보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전환시대 언론도 위기 맞아
언론향한 신뢰·인식 바닥으로 추락
저널리즘 품질 향상 위한 반성 요구

승려대회 전후 언론 보도행태 주목
‘기득권’ ‘실력행사’ 등 부정적 보도
균형잃은 보도에 불교이미지 실추

공정성·객관성·중립성 잃어선 안돼
불교 언론들 위상·역량 상승도 중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불교계의 이슈는 사찰 문화재 입장료와 종교편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찰이 징수하는 입장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표출되었다. 사실을 왜곡한 당사자를 포함한 집권 여당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불교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정부의 종교편향성 문제까지 들추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승려대회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가 소위 불심 달래기에 나섰고, 표면적으로나마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은 승려대회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실력행사”라고 매도하거나, 불교계를 “탐욕스런 집단”으로 폄훼하는 일부 취재원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는 등 불교에 대한 불공정 보도를 양산하였다. 이 같은 일부 언론의 불교 보도 태도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불교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했다. 언론의 균형 잃은 불교 보도 태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불교 보도 및 저널리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언론의 노력과 자기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언론계는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1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합일간지의 매출은 물론이고, 종사자 수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언론인에 대한 인식이 끝없이 추락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어려운 공채시험에 합격한 젊은 기자들의 언론계 탈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젊은 기자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만든 배경에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언론사의 조직문화, 언론의 사회적 평판과 영향력의 하락, 그리고 미래 비전의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의 훼손이 핵심 요인은 아닌지 언론계는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종교보도에서도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이는 언론이 정보를 수집, 처리,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을 세우고 특별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원칙은 첫째 중립성 유지의 원칙이다. 즉 취재 대상에 대해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편부당의 원칙으로 논쟁 가운데서 누구의 편을 들거나 편견을 보여서도 안 된다. 세 번째로 객관성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정확해야 하며 여타의 진리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이다.

언론에 있어서 종교는 껄끄러운 보도 대상일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 후 종교계의 집단 반발이나 물리적 대응이 자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 차원에서 언론은 당연히 종교의 일탈행위나 종교가 사회의 건전한 풍속 또는 도덕률을 해치는 사례를 보도해야 한다. 개별 종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신문이 종교에 따라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보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교를 그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보도 태도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언론의 편향된 불교 보도 사태를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불교 언론인 개인의 주도적 노력, 경영진의 동참과 투자, 언론계 외부의 노력을 통해 전문 불교 언론인 양성에 주목하여, 불교 언론계의 역량과 위상을 키워가야 한다. 이것이 언론으로부터 불교를 지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언론을 구하는 길이다.

社說

러시아, 이젠 전쟁을 멈춰라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의 한 6세 소녀 사진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다. 소녀를 안은 아버지의 얼굴과 손은 피로 물들어있었고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을 받는 아이의 몸은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곧장 응급 수술을 했지만 소녀는 결국 숨을 거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에 이어 민간인 주거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로 1600명이 넘는다. 주요 대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은 물론 유치원과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 있다.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 중동 등에서 ‘전쟁 반대’ 등의 팻말을 내걸고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과 세계 종교계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국제사회의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전쟁은 구시대적이다. 비폭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3월 2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전국 사찰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발원문’을 통해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평화 염원 함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민간인 살상과 전쟁을 중단해 전쟁 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템플스테이 20주년에 부쳐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운영 2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3월 2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치유를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마음 더하기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한 해외 홍보행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된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아닌 ‘종교’로 인식하는 대중들의 편견부터 체험관광 상품으로 부상하는 중국, 일본의 템플스테이까지 안팎으로 위협 요소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열린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에서도 템플스테이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된 바 있다. 운영사찰들도 개방적인 사고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필수다.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동백꽃 소식

남녘에서 동백꽃이 피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반질반질 초록 잎이 얼어도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 그 숨결은 애달프고 선연하다.

중국 옥룡사 마당의 땅딸보 동백나무는 2만 송이 꽃을 피워 제 몸을 홀로 가누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남쪽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동백꽃은 한 송이 한 송이 제각기 피어나고 떨어진다.

또록또록 피어나는 그 동백꽃은 곱고 단아하다. 요즈음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동백꽃과는 울림이 다르다. 커다란 꽃잎으로 겹겹이 치장한 현대판 동백꽃은 알렉산더 듀마가 쓴 〈동백꽃 여인〉의 ‘춘희(春姬)’를 떠올리게 한다. 춘희는 귀족 남자를 사랑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고급 창녀다.

나를 부르는 동백(冬柏)은 춘희처럼 봄바람에 춤을 추는 춘백(春栢)이 아니다. 춘백은 따뜻한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겨울에는 동면한다. 하지만 동백은 나비도 날아오지 않는 겨울에 동박새를 기다려 꽃을 피운다. 춘백(春栢)은 옥룡사 동백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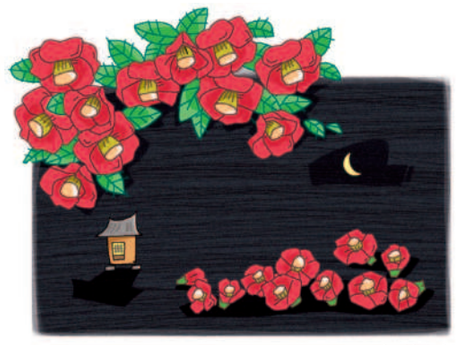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수 백송이 꽃을 피워 세인을 유혹하지만, 동백(冬柏)은 설중송백(雪中松柏)으로 흰 눈 속에서도 제 빛을 잃지 않고 청청하다.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고고한 마음으로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그 고통 오죽했으면 그렇게 작은 홑겹 꽃으로 솟구쳤을까. 유난히도 붉은 꽃잎에는 사랑을 담고.

동백꽃은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낙화한다. 모든 꽃들은 생기 잃어 추해지면 땅으로 떨어지지만 동백은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땅을 붉게 물들인 동백꽃은 또 다른 처연한 황홀감을 안겨준다. 밤새 수북이 떨어진 동백꽃 만다라에 새벽빛이 비추면 가슴 아리지만 솔 향 같은 숭고함이 피어오른다. 진달래는 지니까 즈려밟고 갈 수 있을지라도 동백꽃은 밟고 갈 수가 없다.

소혜가 왕양명에게 도(道)가 무엇이냐고 묻자 주야지도(晝夜之道)라고 말했다. 김흥호 선생님은 낮과 밤을 햇님, 달님으로 해석한다. 생(生)이 햇님, 사(死)가 달님이라는 은유다. 나무 위 동백꽃이 햇님이라면, 땅에 떨어진 동백꽃은 달님이다. 햇님 뜨는 낮과 달님 뜨는 밤이 하루이고, 생사(生死)가 하루이다. 이 하루가 영원이라서 운문선사는 일일호일(日日好日)이라 하셨을까?

돌산도 향일암의 해수관음상을 에워싼 동백은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바라보며 붉은 꽃송이를 피우고 있겠지….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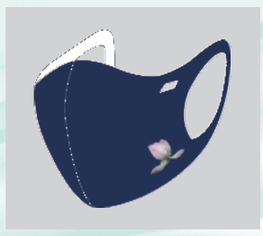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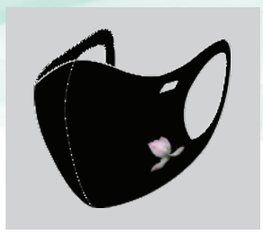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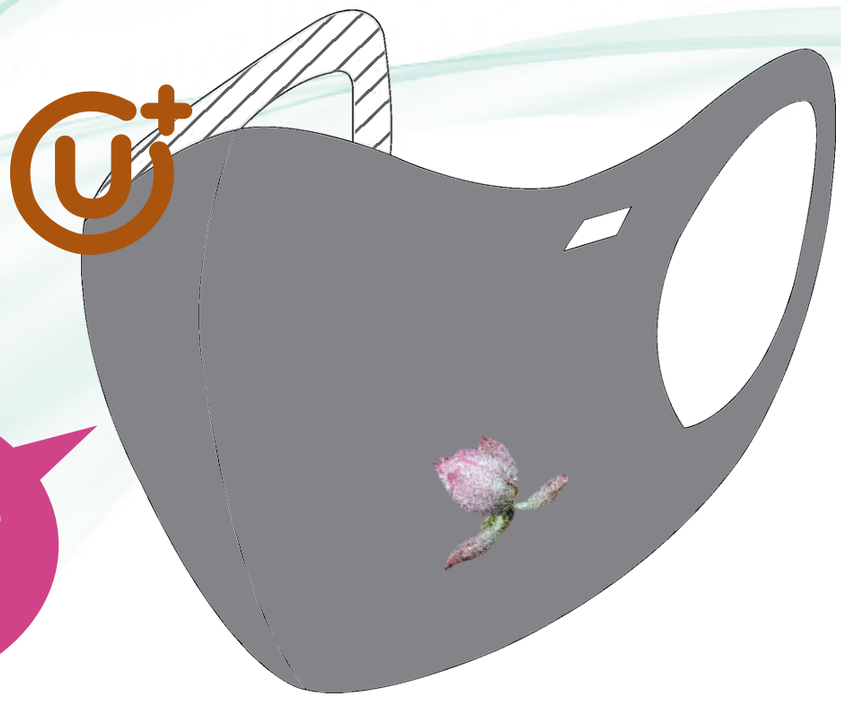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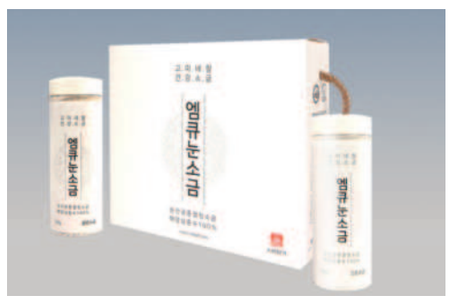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